분란 가열시키는 가신들

metro®
메트로 2015년 8월 5일 수요일 제3273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4일>

코스피 2027.99 (+19.50)

코스닥 730.03 (+15.69)

금리(국고채 3년) 1.48 (-0.02)

환율(원·달러) 1165.50 (-2.00)

KT가 최근 전국 임직원들에게 배포한 '계급부채'. 임원과 팀장, 평사원 등을 서열에 따라 왕, 장군, 일당백 등으로 나눠 표현했다. KT 경영지원본부 기업문화실은 지난달 27일 인트라넷에 올린 공지문에서 이를 '열정부채'라고 칭하면서 "직원들은 부채 뒷면에 각자의 이름을 쓰고 각오를 다집시다"라고 했다. /출처=KT

임원은 王, 황창규는?

KT, 임직원 서열별로 구분한 '계급부채' 배포
임원은 '임금님', 팀장은'장군', 직원은 '일당백'
간부 교육자료도 군대식 용어로 상명하복 강조

KT(회장 황창규·사진)가 임원을 '왕'에 비유하고 사원을 '일당백'이라고 표현하는 등 조선시대와 같은 계급사회를 강조하는 내용이 담긴 부채를 전국 KT 직원에게 배포했다.

소통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에 역행하는 '양반과 천민' 같은 계급 사회를 조장하는 모습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4일 KT에 따르면 이 회사 경영지원부문 기업문화팀은 사내 전산망을 통해 지난달 27일 임원, 부장, 지점장, 팀장, 직원용 부채 9종을 포함한 총 14종의 부채를 제작해 28일부터 배포한다고 공지했다.

KT측은 "이 부채에는 직급별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 재미있는 디자인과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부채의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임원용 부채는 임원을 임금으로 표현하고 '임파워먼트 넘버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부채에 임금 복장을 한 그림의 얼굴 부위에 임원이라고 큰 글자로 인쇄해 계급을 구분짓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 등은 굴지의 대기업인 KT가 계급 사회 조장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임원을 임금님으로 표현하고 부장, 팀장 들을 군인으로 비유해 '나를 따르라' 등의 문구를 넣으며 계급 사회를 연상케한 발상 자체가 하나의 공동체인 기업에서 가져야할 태도가 아니다"라며 "경고 등 처벌할 규정이 있는지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임원은 왕이다, 직원들은 죽어라고 열정을 다해야 한다는 식의 부당한 노동의식과 계급의식을 보여주는 모습"이라며 "요즘은 어떻게 하면 격의 없이 임직원들이 소통하고 임직원간 계급문화를 없앨 수 있을지 노력하는 추세인데 이 와중에 '일당백'과 '열정'을 강요하면서 하급직원에게 억압과 스트레스를 주는 이런 조직 문화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원용 부채에는 '임파워먼트'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이는 "지휘관의 역할을 책임지고 권한 범위 내에서 허들(장애물) 제거를 표현한 것"이라는 게 KT 측의 설명이다.

임파워먼트라는 표현은 KT의 '현장경영 활성화를 위한 현장 지휘관의 사명'이라는 부문장 특강 자료에도 있다.

팀장, 지점장, 부장 부채에는 군인 이미지를 쓰면서 '나를 따르라!', '실적은 사랑입니다' 등의 문구를 삽입했다.

KT 직원 A씨는 "타사는 감성경영과 소통경영 등을 내세우며 임원과 직원이 격의 없이 스포츠까지 즐기는 마당에 군대처럼 막연하게 '나를 따르라'는 등으로 압박하는 기업문화가 횡행하는 KT가 한심하다"며 "평직원들은 윗선에서 계급 부채 따위나 만들고 있으니 어떻게 회사가 발전을 하겠느냐며 개탄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런 충성심을 강조하는 조직 문화는 황창규 회장이 취임한 이후 KT 내부 곳곳에 퍼져 있다는 게 직원들의 전언이다.

KT의 '현장 지휘관의 사명' 특강 자료에는 "보병이 기마술까지 익히듯 강한 현장을 추진할 수 있고, 실제 무기보다 두배 무거운 무기로 훈련하듯 철저한 교육·훈련을 실행한다"고 적혀있다.

자료에 쓴 단어마다 군대식 표현을 써가며 윗사람의 명령에 아랫사람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상명하복 조직 문화를 강요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외에도 "네일 내일을 따지지 말아라"는 강압적인 문구도 눈에 띈다.

'계급 부채'를 나타내는 13종의 부채들 중 직원용으로 보이는 부채는 별도의 사람 이미지 없이 문구로만 구성돼 있는 게 대다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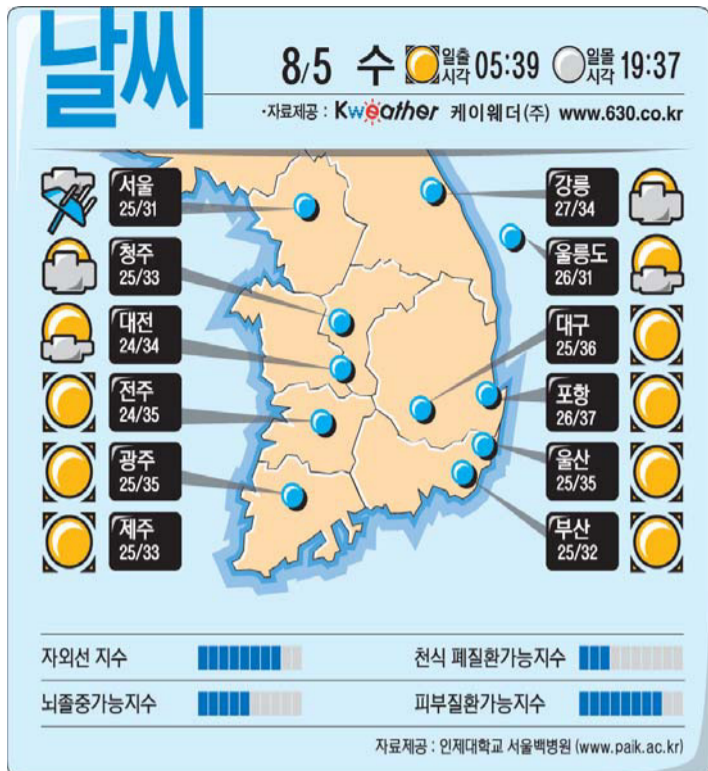
'필생즉사 필사즉생 일당백 목숨 걸고 일한다', '마이더스의 손 하면 된다 내가 손대면 무조건 노다지', '무한 긍정맨 내 사전에 NO란 없다', '숨은 인재 곧 모습을 드러낼테니 긴장들 하십쇼' 등이다.

KT의 직원 B씨는 "윗사람 말을 무조건적으로 따라야하는 상명하복 문화가 황창규 회장 취임 후 고착화되더니 부채로 표현됐다"며 "KT가 민영화된 이후로 개인 권한을 존중하는 문화는 없어지고 관료적인 의식과 강압적인 부분만 남았다"고 말했다.

KT의 직원 C씨는 "황 회장이 들어오고 나서 KT는 군대식 조직문화에 더해 삼성식 문화까지 도입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사내방송 KBN을 만들어 주 3회 업무시작 시간전에 생방송을 한다. 그룹사 뉴스나 황 회장의 강조 사안들이 나오는데 이 방송을 시청하는지까지 관리해 인사고과로 넘긴다"고 설명했다.

한편 KT 계급 부채 배포 공지를 알렸던 글은 사내 인트라넷에 올라온 직 후 8000여건 이상 조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은 논란이 일자 소리 소문 없이 삭제 됐다. 부채 배포도 중단된 상태다.

이에 대해 KT측 해명을 듣고자 했으나, 홍보실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아무런 답이 없었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경제·산업

▲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직업병 관련해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 협상 주체인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가족대책위)와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은 4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 **항공주**가 국제유가 급락 소식에 모처럼 신바람이 났다. 최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내리면서 항공주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 **금융권**이 영업망 새판짜기에 돌입했다. 저금리·저성장 시대를 맞아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지주 계열사간 칸막이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점포수를 줄이는 대신 은행·보험·증권 복합점포 등을 하나로 합치거나 특화시킨다는 전략이다.

▲ 저유가와 정세불안 등으로 중동지역의 건설 발주가 줄면서 **중앙아시아**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풍부한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시설인프라가 부족해 앞으로도 대형 발주가 이어질 전망이다.

▲ 올해들어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일반분양분이 많아 로열층 분양 받기가 쉬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대거 공급될 예정이다.

▲ **IBK기업은행**은 주거래고객 우대혜택을 강화한 패키지 예금상품 'IBK평생한가족통장'을 판매한다. 개인의 계좌이동제를 대비해 나온 이 상품은 입출식, 적립식, 거치식 예금으로 구성됐다.

▲ **코트라**(KOTRA)는 4일 공개한 '韓日 제3국 상생협력 진출전략 –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아세안, 아프리카 등 일본 자동차기업의 시설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지역에서 납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본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현지 납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4일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4개사가 '유선통신 서비스 판매점 사전승낙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 **KT**(회장 황창규)가 임원을 '왕'에 비유하고 사원을 '일당백'이라고 표현하는 등 조선시대 같은 계급사회를 강조하는 내용이 담긴 부채를 전국 KT 직원에게 배포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 올해 들어 **현대자동차**의 판매 감소가 매달 이어지고 있다. 현대차의 전략모델마저 예상보다 저조해 실적 하락세가 뚜렷한 양상이다.

정치·사회

▲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물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전격 경질했다. 후임에는 **정진엽**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교수를 내정했다. 청와대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이 물러나면서 후임엔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내정됐다.

▲ 정부가 국민사기 진작을 위해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함에 따라 시민들은 14~16일 3일간 광복절 **황금 연휴**를 맞게 됐다.

▲ 여름휴가에서 복귀한 **박근혜** 대통령은 6일 후반기 국정운영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 5선 의원이자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상천**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암 투병 끝에 향년 77세로 세상을 떠났다.

▲ DMZ 수색작전을 펼치던 중 **지뢰**가 터져 부사관 2명이 중상을 당했다.

▲ 전국 4년제 대학교 중 **등록금**이 가장 높은 대학은 명지대·을지대·신한대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 6월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에 공시한 '2015년 대학 평균 등록금'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등록금이 가장 높은 대학교는 명지대학교로 평균 등록금이 910만7900원을 기록했다.

▲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인 50대 여성이 자신의 어머니 육모(86)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씨는 사소한 문제로 육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며 "범행 수법 및 위험성 면에서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 **정운호**(50)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해외원정도박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마카오 등에서 카지노 VIP룸을 운영하며 기업인들의 원정도박을 알선한 국내 폭력조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대표가 이들의 해외원정도박에 연루된 단서를 포착했다.

울산 앞바다 돌고래 천지 국내 유일 고래관광선인 울산 고래바다여행선은 4일 오전 울산 앞바다에서 참돌고래떼 1000여 마리 구경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유통

▲
신동빈(60) 롯데그룹 회장이 입국한 뒤 신격호(94) 총괄회장 측 반격에 나서면서 롯데그룹 정책본부를 비롯해 계열사 사장단 등 신 회장을 돕거나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해온 **가신(家臣) 그룹**의 개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신 회장의 최선은 "롯데를 나누는 것"으로 보인다.

▲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사태가 장기화조짐을 보이면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소비자단체들의 **롯데 불매운동**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불투명한 그룹 지배구조 개선과 탈세에 대한 면밀한 조사 촉구 등이 이어지고 있다.

▲ **CJ제일제당**(대표 김철하)이 비비고·햇반 등 가공식품 대형 브랜드와 바이오 부문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 장기 불황에도 두자릿수 성장세를 나타냈다. 상반기 매출(대한통운 제외)이 3조966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3353억원으로 80.6% 상승했다.

국제

▲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책 브레인 중 한 명인 **기타오카 신이치** 일본 국제대 학장이 방송에서 8·15담화 내용에 대해 "한·중에 대한 과도한 배려는 불필요하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화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자 공화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3차원 인쇄로 제조한 **간질 치료제**를 처음으로 허가했다. 미국 제약사 아프레시아 파마슈티컬스이 제조한 '스프리탐'은 내년 1분기 출시 예정이다.

▲ 영화 배트맨의 악당 '조커'를 흉내 내 지난 2012년 7월 미국 콜로라도 주 영화관에서 총기난사로 12명을 살해한 **제임스 홈즈**가 사형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인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 머티리얼** 측이 제안한 합의안을 수락하기로 결정했다.

황제식 세습경영에 눈·입 가린 '당정'

재벌문제 살펴보자던 與 '침묵'
휴가복귀 朴대통령 '노동개혁'만
野 "개혁 우선순위는 재벌" 질타

하루 전 한국 재벌의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자던 새누리당이 4일 재벌개혁에 침묵했다. 단지 내분 중인 롯데가에 대해서 대변인 차원의 논평만 냈다. 휴가에서 복귀한 박근혜 대통령은 롯데 사태에 대해서 침묵했다. 하반기 국정목표로 정한 노동개혁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문제가 아닌 재벌문제가 한국 경제의 최대 모순이라며 최소한 재벌개혁과 노동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벌의 권력은 결코 오너 1인이나 가족의 것만은 아니다"라며 "한국 경제의 모순은 노동이 아니라 재벌의 지배구조와 가족경영, 상속경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의 우선 순위는 자본개혁, 재벌개혁이 먼저이거나 최소한 노동개혁과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는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담보하는 노동구조 개편에 대한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며 "슈퍼갑인 재벌 대기업에게 노동자의 생사여탈권마저 넘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롯데 사태를 언급하며 "노동자의 나라는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정부는 경제난과 청년실업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지만 삼성에 이어 롯데 경영권 문제를 보면 이런 주장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알 수 있다"고 했다.

또 "재벌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그 자체로 우리 경제의 핵심 위험요인,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며 "삼성, 현대, 두산 등 재벌 대부분이 경영권 분쟁이나 불법을 넘나드는 세습논쟁으로 이런 문제들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재벌개혁 관련 법안들도 이미 상당수 발의한 상태다. 소수가 발의한 법안을 제외하더라도 당력을 모은 법안만 벌써 2개다.

2012년 7월 소속 의원 127명이 함께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순환출자제한 기업집단과 출자총액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를 통과했다면 400여개의 순환출자고리를 가진 롯데그룹이 직격탄을 맞을 법안이다.

올해 2월 새누리당 4명을 포함해 모두 104명이 함께 발의한 이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은 횡령·배임으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를 통과하면 재벌가는 상속을 위한 자금마련이 어렵게 된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발의 당시만 주목받았을 뿐 다른 이슈에 묻혀 잠자고 있다. 롯데 사태를 계기로 새정치연합이 재벌개혁 분위기를 띄우고 있지만 동면상태가 풀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관심사는 노동개혁이다. 이날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하반기 국정과제로 노동개혁과 규제완화를 강조했다. 재벌개혁은 물론이고 롯데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친박근혜계 의원의 좌장인 서청원 의원은 전날 정부에 재벌개혁을 요구했지만 이날은 침묵했다. 김영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롯데 그룹을 향해 "지배구조의 불투명성과 후진적 경영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상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혁신해야 할 것"이라고 했지만 재벌개혁으로 확대하지는 않았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금강산서 고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 12주기 추모 현대아산 임직원들이 4일 오후 금강산 현지에서 고 정몽헌 회장 12주기 추모식을 진행하고 있다. 고 정 전 회장은 2003년 대북송금 수사 도중 투신자살했다. 2000년 현대가 '왕자의 난'으로 현대차가 그룹에서 떨어져 나간 뒤 그는 대북사업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정경유착의 덫에 걸려 좌절하고 말았다. /뉴시스

광복절연휴에 나들이 선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철도여행 '내일로' 반값 할인
고궁·국립휴양림 무료 개방

박근혜 대통령(가운데)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14일을 임시연휴로 정하면서 시민들은 14~16일 3일간 광복절 황금 연휴를 맞게 됐다.

정부는 이날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 진작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연휴 종합선물센트까지 제공했다.

우선 정부는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14일 하루 민자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하이패스 차로는 요금징수시스템을 정비한 뒤 통행료를 면제한다. 일반 차로의 경우 수납원에게 통행권만 제시하고 무료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만 28세 이하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철도여행 상품인 '내일로'를 8일부터 31일까지 50% 할인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무료로 제공한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15개 시설, 그리고 41개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도 연휴 기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송병형 기자

총수 부재에도 SK·한화株 '껑충'

3년간 주가 상승률 30% 넘어
총수 재판 중인 CJ도 20%대

총수가 사법처리를 당해 형사처벌중이거나 재판중인 재벌그룹들의 주가상승률이 다른 재벌그룹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4일 나타났다.

한국거래소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말과 2014년 말 상장계열사들의 주가수준을 비교한 결과 △한진그룹(36.3%) △SK그룹(33.3%) △한화그룹(31.1%) △GS그룹(21.8%) △CJ그룹(21.2%) 등의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이 중 SK그룹과 한화그룹은 총수들이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언론에서 거론되는 계열사다.

CJ그룹은 총수가 현재 재판중에 있다. 이들 그룹은 최근 3년간 주가상승률이 다른 그룹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K그룹의 상장사인 에스케이이노베이션와 에스케이하이닉스의 주가상승률은 각각 235.3%, 117.5%를 기록했다. SK그룹의 주력사업인 에스케이이노베이션는 기술력을 확보하며 여전히 견고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 SK그룹은 C&C와의 합병으로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확보한 상태다. 부채비율도 작년 198%에서 현재 46%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한화그룹의 상장사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 역시 309.7%에 이르는 높은 증감률을 보였다. 게다가 한화갤러리아는 지난달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에도 선정돼 오는 12월 63빌딩 시내 면세점을 오픈할 예정이다.

총수 부재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일반론과는 다른 결과였다.

총수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서 더 나아가 총수 사면의 실익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해석도 있다. 자료를 분석한 박 의원이 대표적이다.

박 의원은 "국민화합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특정 재벌그룹들의 총수를 특별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법불신만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경제활성화를 핑계로 재벌들의 민원을 들어줄 게 아니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에서 드러난 것처럼 재벌총수들의 전근대적 황제경영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선공약대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더욱더 강하게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정원 기자 garden@

'김영사 사건' 김강유 대표 곧 소환 될 듯

檢 '배임·횡령·사기 혐의' 본격 수사 착수
고소인 박은주 前사장·직원 2명 소환조사

출판사 김영사를 놓고 박은주(58) 전 사장과 김강유(68) 대표이사가 벌이고 있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3일 박 전 사장을 고소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전 사장과 함께 김영사 직원 2명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수사를 거친 뒤 김 대표를 소환할 방침이다.

김영사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달 23일 박 전 사장이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박 전 사장은 고소장을 통해 김 대표가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회사에 채권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김영사 자금 35억원을 빌려줘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가 김영사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도 월급 등의 명목으로 30억원 상당의 돈을 받았다고도 했다.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 뒤 김 대표가 보상금 45억원을 준다고 속여 박 전 사장의 회사 경영권을 모두 포기하게 하는 등 285억원 상당을 잃게 만들었다며 고소했다.

박 전 사장은 1989년부터 김영사의 대표이사 사장을 맡아 25년 동안 실질적으로 회사를 이끌면서 연매출 500억원이 넘는 회사로 키웠다. 첫 밀리언셀러인 1989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를 비롯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정의란 무엇인가' 등의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내며 출판계의 '미다스의 손'으로 불렸다.

검찰이 출판사 김영사를 둘러싼 전·현직 대표 사이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박은주 전 사장. /연합뉴스

그러나 박 전 사장은 지난해 돌연 사임한 뒤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직에서도 물러나 여러 의혹에 휘말렸다. 박 전 사장의 사임을 전후로 김영사의 일부 임직원들에 대한 부당해고와 배임·횡령 소송 등이 잇따르면서 경영권을 둘러싼 김 회장과 박 전 사장의 갈등 심화설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김 대표는 김영사의 설립자이자 실소유주다. 지난 1983년 김영사를 세운 뒤 당시 30대 초반이었던 박 전 사장에게 지분과 경영권을 물려주고 자신은 직접 만든 법당에서 종교 생활에 전념해왔다.

박 전 사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1984년부터 2003년까지 20년 동안 부모님도 버리고 법당에서 숙식을 하며 출퇴근했다. 그 20년 동안 번 모든 돈을 김 대표에게 바쳤다"고 주장했다. 사장직 사퇴 이유에 대해서는 "2014년 3월 주총에서 김 회장이 대표이사 회장이 됐다. 김 회장의 형을 감사로, 법당에서 파견한 신도를 부사장으로 임명했다"며 "새 경영진의 엄포와 협박으로 심장마비에 걸릴 지경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사 측은 "박 전 사장의 폭로는 자기 자신의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사장이 불의한 방법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지난해 3월 즈음부터 감사를 받아왔고 이 과정에서 5월 퇴사했다는 것이다.

김 대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자(박 전 사장)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과 화해를 위한 노력을 해왔는데 결국 고소를 당하게 돼 황당하고 안타깝다"며 "저는 어떤 방식으로도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음을 떳떳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연천 DMZ 폭발사고, 2명 부상

수색작전 중 지뢰 터져
하사 2명 다리에 중상

DMZ 수색작전을 펼치던 중 지뢰가 터져 부사관 2명이 중상을 당했다.

4일 오전 7시 42분께 경기도 연천군 비무장지대(DMZ)에서 육군 모 부대 소속 장병들이 수색작전을 하던 중 폭발물이 터졌다.

이 사고로 하사 2명이 다리에 중상을 입고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들은 현재 대화가 가능한 상태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뢰를 밟아 사고가 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윤정원 기자 garden@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진엽 내정

박근혜 대통령이 4일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물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했다. 후임에는 정진엽(사진)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교수를 내정했다. 또 최원영 고용복지수석도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으로 교체했다. 추가 개각은 없을 전망이다.

이번 인사는 같은 날 오전 문 장관이 새누리당 지도부와 가진 '의료기관의 환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회의'가 끝난 지 반나절도 채 안 돼 이뤄졌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 교수를 신임 복지부 장관에 내정했다고 전하며 "(정 내정자는) 공공 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에 안정을 이룰 적임자"라며 "정 내정자는 대학병원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병원을 환자 중심의 병원으로 발전시키는 등 다양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보건복지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인 김 신임 고용복지수석은 이날 의원직을 사퇴했다. 의원 직은 장정은(48·여) 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도지회 부회장이 승계했다.

/윤정원 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강 세 준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발암물질 나온 '천연물 신약' 시중판매 여전

새누리 김재원 의원
"허가 특혜의혹 규명 후 책임자 징계 요구 방침"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해 왔던 글로벌 신약 개발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15년간 3092억(복지부 예산 334억)이 들어간 천연물신약 개발은 당초 글로벌신약을 목표로 투자됐다. 하지만 천연물신약은 지난해만 1430억이 판매됐는데 그 중 해외에는 6억 원을 수출하는데 그쳤다. 그것도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는 의약품으로 허가조차 받지 못했다. 수출된 곳 역시 몽고, 필리핀, 남아공 등 개발도상국 이었다.

지난 2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감사원 감사결과 천연물신약 중 발암물질이 검출된 의약품에 대한 허가 취소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사업 효과성과 허가 절차 완화 특혜 의혹 등을 규명하고 문제가 있을 시 책임자 징계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3년 5개사 6개 의약품에서 벤조피렌 등이 검출됐음에도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실제 대변인과 통화에서 해당제품들은 인체에 무해한 이유로 지금까지 유통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식약처에서 밝힌 안전한 소량이란 2013년 언론사 해명자료에서 벤조피렌의 경우 최대 검출된 제품의 노출량(0.01639 ㎍)을 WHO에서 정한 최대무독성용량(벤치마크용량, 성인기준 6 ㎎)과 비교 시 2.7×10^{-6}수준(노출안전역 3.7×10^{5})을 말한다. 하지만 글로벌 신약의 경우 미국이나 유럽 등 수출하는 나라의 기준에 맞춰야 하기때문에 단순히 WHO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15년 간 천연물신약의 해외수출실적> /보건복지부, 감사원

연번	업체	제품명	효능·효과	수출액(주요 수출국)
1	SK케미칼	조인스정	퇴행성 관절질환	없음
2	구주제약	아피톡신주	골관절염의 통증개선	없음
3	동아제약	스티렌정	급성위염, 만성위염에 대한 위점막 병변의 개선	6억원 (필리핀, 몽고, 남아공 등)
4	동아제약	모티라돈정	기능성 소화불량증	없음
5	녹십자	신바로캡슐	소염, 진통, 골관절증	없음
6	안국약품	시네츄라시럽	진해거담제	없음
7	한국피엠지제약	레일라정	골관절증의 증상 완화	없음
8	영진제약	유토마 외용액(2%)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 개선	없음

이에 식약처에서는 "2015년 감사원의 지적 후 업체에 발암물질 검출량 관리 강화를 지시했고, 발암물질 관리기준은 앞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된 천연물신약은 8개로 이 중 7개 제품이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다[표]

김 의원은 "천연물신약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도 계속 안전하다고 주장한 것은 인허가 과정의 부실이나 특혜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신약개발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부 담당자는 "신약을 개발하는데 보통 20년이 걸리고 해당 국가에서 임상시험 중에 있는 의약품도 있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없다고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담당자는 "또 투자된 돈은 일정기간 과제평가를 통해 추가투자를 할 것 인지 아니면 환수를 할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15년간 천연물 신약 개발을 위해 복지부와 타부처 예산 3092억원을 포함해 건보재정 약 1조 40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김의원은 또 "정부는 천연물신약에 대해 약가 재평가와 안전성·유효성 재검증에 나서야 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의약품은 허가 취소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글로벌 신약에 막대한 돈을 들여 개발했지만 결국 국내 시판에 그치고 말았다. 따라서 발암물질 검출로 안전성까지 의심되고 있는 의약품을 국민들이 복용하고 있는 꼴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한 안정장치는 현재 전무한 상태다. 복지부나 식약처에서는 앞으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국민건강에 위해 되는지 여부를 체크하겠다고 밝혔다.

/최치선 기자 chisunti@

올해 '교사 성범죄' 닷새에 한 번꼴 발생

상반기 징계 건수만 35명 법령 개정 방안 검토 중

교사들의 성추행과 성희롱 범죄가 올해 들어 급증했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성추행, 성희롱 등에 연루돼 징계 처분을 받은 전국 초·중·고교 교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35명에 이른다. 닷새마다 한 번꼴로 교사들의 성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교원은 2011년 42명, 2012년 60명, 2013년 54명, 지난해 40명이었다. 2013년 이후 감소세를 보인 교사 성범죄가 올해 들어 증가해 이미 상반기에 지난해 전체 숫자와 비슷해졌다.

2011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성범죄로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당한 교원은 모두 167명이다. 경징계 교사까지 합치면 모두 231명이다.

교사들의 성범죄 실상은 공식 통계치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는 게 교육계 안팎의 의견이다. 가해 교사보다 상대적 약자인 여교사나 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선임 남자 교사들이 젊은 여교사에게 음담패설을 하거나 회식 자리에서 춤을 추자면서 신체접촉을 강요하는 일도 다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초등학교의 30대 초반의 여교사는 "일부 50대 남자 교사가 20~30대 미혼 여교사에게 듣기 거북한 음담패설을 하거나 노래방에서 '블루스'를 추자며 추태를 부리는 사례가 잦다"고 말했다.

교생 실습을 나온 여대생들도 성범죄의 희생이 된다. 불쾌감을 피력했다가 실습 점수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약점 때문이다.

최근 학부모의 민원 제기로 세상에 알려진 서울의 한 공립 고등학교 남자 교사들의 동료 여교사와 학생들에 대한 성추행과 성희롱도 위계와 권력관계에서 생긴 범죄다.

학교 관리감독의 총책임자인 학교장이 여교사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한 정황도 포착됐다.

동료 여교사에게 성추행을 일삼은 교사들은 모두 50대 남자들로 교무부장과 학년부장 등 주요 보직자다.

학생들을 성추행한 교사는 입시 전문가로 인정받으며 학생들의 진로진학 지도를 전담한 인물이다. 최신 대입정보와 비법으로 무장한 베테랑 교사의 만행에 학생들이 함부로 저항하지 못하고 속병만 앓았다.

이 교사는 20대 새내기 여교사와 신분이 불안한 기간제 교사에게도 몹쓸 짓을 했다. 이 교사에게 추행당한 여교사는 최소 6명에 이르는 것으로 시교육청은 파악했다.

교단 특유의 비민주이고 가부장제 분위기, 보수적인 문화,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온정주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강혜승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연배에 의한 위계와 입시 전문가 교사와 학생이라는 불평등 구도에서 성추행과 성희롱이 자행됐다"고 진단했다.

강 대표는 "학교 공동체는 여전히 가부장적이고 비민주적이며 성평등 의식 수준이 낮은 공간임을 이번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점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교직원이 성범죄 피해를 보면 학교가 교육청 등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학교장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교사라면 명확한 신고 절차가 없다. 이런 허점 탓에 교사들 사이의 성범죄를 학교가 축소·은폐할 수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홍원 기자 hong@metroseoul.co.kr

광복 70주년, 태극기로 꾸며진 시원한 조롱박 터널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구청 광장에서 어린이들이 태극기가 설치된 조롱박 터널을 지나고 있다. 용산구청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지난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태극기-조롱박터널, 태극무늬 바람개비, 청사 외벽 대형 태극기 설치를 비롯해 가로기 게양 시범거리 운영과 캠페인 실시 등 '태극기 사랑하기 운동'을 추진한다. /뉴시스

긴즈버그 美대법관, 양승태 대법원장 예방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82·사진) 미국 연방대법관이 4일 양승태 대법원장을 예방했다고 대법원이 밝혔다.

지난 3일 저녁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긴즈버그 대법관은 4박 5일 일정으로 한국에 머무른다. 방한 기간 동안 대법원에서 소수자 보호와 인권 등을 주제로 김소영 대법관과 대담 형식의 강연을 하고,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박한철 헌재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을 만날 예정이다.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 지명으로 연방대법관이 된 긴즈버그 대법관은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대법관이자 진보적 결정을 주도해온 것으로 유명하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2013년 대법관 가운데 처음으로 동성결혼 주례를 맡았고, 낙태 시술 금지 반대 의견을 내는 등 판결을 통해서 소수자 보호에 앞장섰다. /이홍원 기자

"흡연 훈계로 알바생 목덜미 주무르면 추행"

대법 "객관적인 훈계 행위로 보기 어려워"

나이 어린 아르바이트생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훈계한다며 목덜미나 팔뚝 등을 잠깐 주물렀다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을까.

이러한 행위에 훈계의 의미가 있다고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모(51)씨의 상고심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신씨는 2013년 6월 자신이 상무로 근무하는 공장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던 19세와 20세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린애가 무슨 담배를 피우느냐"며 목뒤를 3초간 주무르거나 볼을 잡고 흔들었다.

또 허리를 팔로 휘감거나 오른쪽 팔 윗부분을 주무르기도 했다.

신씨는 또 회사 이름으로 대여한 기계를 임의로 중고매매상에게 팔아넘기고 4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횡령)도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신씨에 대해 1심은 추행과 횡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개방된 장소였고 어른으로서 훈계한다는 의미에서 짧은 시간 신체 접촉을 한 것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2심은 추행 혐의를 무죄로 보고,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19세, 20세의 여성으로 피고인이 상무로 있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한 지 일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사건이 발생했다며 비록 훈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더라도 추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여성인 피해자들의 목덜미나 등, 팔뚝 부분을 쓰다듬거나 주무르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훈계를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유선준 기자 rsunjun@

"민간위원 비리도 '공무원 수준' 처벌"

정부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이 뇌물을 받아도 대부분 벌금에 그쳤던 종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인허가 담당 공무원은 이해당사자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징역과 벌금 처벌을 모두 받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자치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의 윤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행정기관위원회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행정기관위원회법에는 직무 관련 비리를 저지른 민간위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공무원 의제 원칙'이 들어갔다.

다만 행정기관위원회법은 공무원 의제 원칙만 담기 때문에 정부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을 실제로 공무원 수준으로 처벌하려면 각 위원회를 설치한 근거 법령 160여 개에도 근거 규정이 들어가야 한다.

행자부는 각 부처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법률 개정에 나서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비리 사실이 드러나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민간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됐다.

서로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정책적으로 밀접한 위원회는 통합 후 분과위원회나 전문위원회 형식으로 운영하는 정비 원칙도 새 법에 포함됐다.

민간위원 해촉 근거 조항 등은 공포된 지 3개월 후부터,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원칙은 1년이 지나면 시행된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제도 틀을 지속적으로 다듬겠다"고 말했다. /김서이 기자 redsun217@

신동빈에 붙은 가신들 분란만 격화

'신격호의 입과 귀' 이인원 부회장, 신 회장 편에 서 정책본부서 여론 주도… 신격호 건강이상설 부각

신동빈(60) 롯데그룹 회장이 3일 입국한 뒤 신격호(94) 총괄회장 측 반격에 나서면서 롯데그룹 정책본부를 비롯해 계열사 사장단 등 신 회장을 돕거나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해온 가신(家臣) 그룹의 개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롯데그룹과 사장단, 츠쿠다 다카유키 롯데홀딩스 사장이 가세한 가신그룹이 신동빈 회장 측에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지분이 없는 이들의 등장은 롯데가 골육상쟁(骨肉相爭)만 격화시킬 뿐, 경영권 구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신동빈 측 줄선 가신들…신격호 "눈과 귀를 멀게한 참모들"

신격호 총괄회장은 지난 3일 육성 공개를 통해 "신동빈의 눈과 귀를 멀게한 참모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롯데 가신들의 과잉 충성은 신동빈 회장이 조만간 열릴 롯데홀딩스 주총에서의 우호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승기가 기운다는 보도가 나오자 부랴부랴 줄서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그간 언론 등 외부 노출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근거리에서 신회장을 보좌하는 데 방점을 뒀지만 최근 경영권 분쟁이 가열되며 적극적인 태도로 신 회장을 지원사격하고 있다.

4일 오전엔 신 회장 지지를 표명한 롯데그룹 계열사 사장단이 대거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에 모여 '신동빈 지지'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롯데그룹을 이끌어갈 리더로 오랫동안 경영능력을 검증받고 성과를 보여준 현 신동빈 회장이 적임자임에 의견을 함께하고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계열사 최고참 CEO인 노병용(65) 롯데물산 대표이사 주도하에 채정병 롯데카드 대표이사, 허수영 롯데케미칼 대표이사, 이재혁 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 김치현 롯데건설 대표이사, 송용덕 롯데호텔 대표이사, 이원준 롯데백화점 대표이사,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김현수 롯데손해보험 대표, 이동우 롯데하이마트 대표, 표현명 롯데렌탈 대표 등 37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신동빈 회장의 예하 조직인 롯데그룹 정책본부가 주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책본부는 롯데의 국내외 계열사들을 전반적으로 운영·관리·조율하는 핵심 조직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신 회장의 측근 세력이 주요 요직에 포진해 있다.

노병용 롯데물산 사장이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홍보관에서 긴급 사장단 회의를 마친 뒤 롯데그룹 주요계열사 사단장과 함께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책본부의 핵심은 신동빈 회장의 오른팔로 불리는 황각규(60) 운영실장과 이인원(69) 부회장 등이다.

이 부회장은 호텔롯데와 롯데쇼핑을 거쳐 2011년 전문경영인 중 처음으로 롯데그룹 부회장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신 회장의 과외선생으로 과거 '신격호의 입과 귀'로 불렸지만 신 회장 측으로 돌아섰다. '신 회장의 오른팔'로 불리는 황각규 실장은 롯데그룹의 각종 인수·합병(M&A)을 주도했다. 신 회장이 1990년 호남석유화학(현 롯데케미칼) 상무로 한국 롯데에 처음 근무할 당시 보필했었다. 이외에도 김치현 롯데건설 사장, 이재혁 롯데칠성 대표, 차원창 롯데시네마 대표 등이 정책본부를 거쳐갔다.

롯데 측은 특히 신 전 부회장을 지지한다고 밝힌 신 총괄회장의 판단능력 이상설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

츠쿠다 다카유키(72)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사장도 이날 가신그룹에 가세, 신 총괄회장의 건강 이상설에 힘을 실었다. 그는 도쿄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 언론과의 회견에서 지난달 27일 변호사만 동석시킨 상황에서 신 총괄회장과 면담했다며 신 총괄회장의 건강에 대해 "같은 질문을 다시 하신다든지 내가 일본 담당인데 한국 담당으로 헷갈리셨다"고 말했다.

또 "대화 때 (신 총괄 회장이) 굉장히 침착하셨고 아주 문제없게 대화를 나눴지만 도중에 '어'하고 생각되는 국면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정책본부에 속한 롯데그룹 홍보실도 신동빈 회장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롯데그룹 홍보실은 신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 전원 해임과 관련해 건강이상설과 판단력 저하 등을 주장한데 이어 신 전 부회장이 제기한 중국사업 1조 손실설 등에도 반박했다. 부자 간의 5분간 만남을 놓고도 "화해했다"며 신 회장에게 유리한 여론 조성을 만드는 데 애쓰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홍콩 등에서 실제 1조 가량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 부자 간의 만남도 "문전박대 당했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는 등 그룹 홍보실의 주장이 갈수록 공신력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특색 못 살린 현대차 '판매부진 늪'

다양한 라인업 전략차 부재 기존 모델은 특색 흐려져

올해 들어 현대자동차의 판매 감소가 매달 이어지고 있다.

현대차의 전략모델 마저 예상보다 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시장에서의 실적 하락세는 뚜렷한 양상이다.

전략모델이란 브랜드를 대변하는 차종으로 폭스바겐 '골프'나 토요타 '프리우스' 등을 들 수 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해들어 7월까지 현대차는 글로벌 시장에서 총 277만4287대를 판매했다.

전년 동기 판매량인 287만7396대와 비교해 3.6% 감소한 규모다.

이 기간 내수판매는 40만6074대에서 39만6036대로 2.5% 줄었다.

해외는 247만1322대에서 237만8251대로 3.8% 감소했다.

지난달의 경우 해외실적이 전년 동월대비 7.3% 줄면서 총 판매량 6.0% 감소를 견인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상반기 영업이익은 3조3389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4조256억원)와 비교해 17.1% 급감했다.

현대차 유럽형 올 뉴 투싼

업계에서는 이같은 판매실적 하락세의 주요원인 중 하나로 확실한 전략모델의 부재를 꼽는다.

세그먼트별로 내놓는 차마다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전략차종임을 강조하지만, 오히려 해당 모델만의 특색이 흐려져 과유불급이라는 것이다.

현대차는 올 1분기 광고선전비 및 판매활동촉진비로 4670억원을 사용했다. 지난해 1년간 광고선전비 및 판매활동촉진비는 2조530억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실적감소의 원인에는 전 차종에 걸친 인기하락이 자리한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내수에서 현대차는 승용차 19만9465대를 팔았다. 전년 동기 21만6945대와 비교해 8.1% 감소한 수치다.

/이정필 기자 roman@

롯데家 진흙탕 싸움에 '불매운동' 확산

경실련·금융소비자원 폐쇄적 지배구조 등 금융당국 조사 촉구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사태가 장기화조짐을 보이면서 반(反) 롯데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반 롯데 정서는 롯데그룹 불매운동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소비자단체들의 불매운동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불투명한 그룹 지배구조 개선과 탈세에 대한 면밀한 조사 촉구 등이 이어지고 있다.

4일 경제정의실천연합회(경실련)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롯데그룹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와 일감몰아주기 등의 탈루 의혹에 대해 공정위와 국세청이 면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면세점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호텔롯데의 수익은 99%의 일본계 지분으로 구성돼 있어 매년 일본으로 배당돼 나간다"며 "결국 국부유출은 물론 총수 일가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5년 4월 기준으로 80개에 달하는 계열사와 그룹 총자산 93조를 가진 민간 재벌그룹 서열 5위의 롯데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형제 간의 사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재벌그룹이 총수일가와 총수1인의 사유물이라는 비윤리적 경영 사고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를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저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즉 출자총액제한 재도입, 금산분리 강화, 기존 순환출자금지, 공시강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의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정부와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원도 "롯데 사태는 국내 재벌의 비양심적인 작태를 드러낸 단면으로 국내 재벌이 사회적 책임이나 공헌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며 롯데카드·롯데백화점 등 롯데 전 계열사에 대한 불매운동을 선언했다. "금융사도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롯데 관련 그룹사에 대한 대출과 투자를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롯데그룹의 정경유착·자금조달·상속·세금포탈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전면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세청의 조사도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롯데그룹 계열사의 광고대행을 하는 대홍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홍기획이 롯데그룹 계열사의 광고 80~90%를 수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증여세 탈루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주요 언론도 반 롯데 정서에 관심을 나타냈다.

NHK는 창업가 내부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전근대적인 경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수습하기 어려운 수준의 갈등이라고 표현했다.

/박상길 기자

계약금 980만원 투자 후, 잔금 918만원 내면 '끝!'

축 GRAND OPEN 축

임대보증금 **447만원**

715만원 1년 수익금 선지급

실 투자금 1,898만원이면 통장으로 매 월 60만원 씩!!

3채 5,700만원! (매월 180만원 지급)

10년 임대차 계약서 발행

분양 중인 호텔 대비 **최대 1억원 저렴!**

예금 1% 초저금리시대 고수익 분양형 호텔이 정답

분양가	8,945만원
보증금	**447만원**
실투자금	**1,898만원**
중도금대출	5,883만원
대출이자	205만원
연수익	715만원
연순수익	509만원
월순수익	42만원
수익률	**26.8%**

위 수익률표는 실투자금 대비 수익률이며 중도금 무이자 50%대출, 잔금대출 10%(개인신용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시 수익률입니다.

- 연 7일 무료숙박
- 수익률 26%
- 가동률 90% 예상
- 지가상승 1위 서귀포 최고입지
- 1년 수익금 715만원 선지급

계약자 선착순 정관장 홍삼세트 증정

방문시 선착순 사은품 증정

모델하우스 서울시 종로구 종로4가 10번지 (종로 5가역 12번출구, 광장시장 건너편)

신청금 100만원 선착순 호실 배정

예금주 : 한국자산신탁(주)

입금계좌 : 351-0776-2742-43(농협)

미 계약시 전액 환불 됩니다.

문의전화 1899-5663

호텔개요 · **대지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270-9 외 4필지 · **용도** : 숙박시설 근린 상업시설 · **건축규모** : 지하2층 ~ 지상10층 · **객실수** : 305실

시행사 비디파트너스 | 운영사 벨류버츄어서클 | 시공사 석장건설 | 자금관리 KAIT 한국자산신탁

국제유가 급락… 항공株, 신바람

대한·아시아나 10% 급등
여객수요 증가에 실적 기대

항공주가 국제유가 급락 소식에 모처럼 신바람이 났다.

최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내리면서 항공주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지속적인 국제유가 하락세와 되살아나는 여객수요가 항공사들의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대한항공의 주가는 전날보다 11.42% 오른 3만8050원에 마감했다.

아시아나항공도 전일대비 9.21% 상승한 65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저가항공 업체를 자회사로 둔 티웨이홀딩스와 한진칼은 각각 11.5% 오른 1만1150원, 7.56% 오른 3만600원에 거래됐다.

전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보다 1.95 달러(4.1%) 내린 배럴당 45.17 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세계적인 공급 우위 현상이 지속되고, 중국의 원유 수요마저 줄어들 것이란 전망까지 겹쳐 급락세를 나타냈다.

증권가에서는 "항공주가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본격적인 반등 국면을 맞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유석 교보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항공사들의 실적 개선세는 지속될 전망"이라며 "따라서 항공주에 대해 재차 관심이 필요한 시기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유가 하락은 항공사들의 수익성 개선과 직결된다. 국내 항공사는 전체 운항원가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6~38%에 달한다. 유가가 배럴당 10 달러 하락할 때마다 대한항공은 2070억원, 아시아나항공은 1010억원의 영업이익이 증가한다. 이 때문에 어느 업종보다 유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

강성진 KB투자증권 연구원도 "항공업황의 펀더멘털(기초여건)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신중하게 항공주 투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되살아나는 여객 수요도 항공주엔 긍정적이다.

송재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 3분기 이후 안정적인 항공 수요 확보가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그는 "인천공항 확장과 항공사별 대규모 항공기 투자 등으로 중장기 성장성도 높다"면서 업종 최선호주로 '대한항공'을 추천했다.

/김민지 기자 minji@

기사제보=02)721-9832

증권 마감시황

외인·기관 동반매수 코스피 2020선 회복

대장주 삼성전자 0.6%↑
4거래일 만에 반등 성공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2020선을 회복했다.

4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19.50포인트(0.97%) 오른 2027.99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06억원, 734억원 어치를 사들였다. 반면 개인은 나홀로 1729억원을 팔았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했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일대비 0.6% 오른 118만2000원에 마감,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SK하이닉스와 포스코는 3% 강세였고, 제일모직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NAVER는 1% 올랐다. 한국전력과 SK텔레콤 등은 1% 가까이 떨어졌다.

업종별로는 건설 전기가스 통신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올랐다. 의약품 유통 운수창고 등이 2% 올라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항공주가 동반 급등했다.

대한항공은 전날보다 11.42% 오른 3만8050원에 마감했고, 아시아나항공도 전일대비 9.21% 상승한 65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저가항공 업체를 자회사로 둔 티웨이홀딩스와 한진칼은 각각 11.5% 오른 1만1150원, 7.56% 오른 3만600원에 거래됐다.

정유화학주는 반등에 성공했다. 롯데케미칼과 대한유화 한화케미칼이 SK케미칼 S-Oil 등이 3% 강세였고, SK이노베이션 LG화학 GS는 1% 안팎으로 올랐다.

코스닥지수도 2% 급등해 나흘 만에 730선을 회복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15.69포인트(2.20%) 오른 730.03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20억원과 189억원 어치를 사들였다. 반면 개인은 487억원을 순매도했다.

시총 상위종목은 로엔을 제외하고 대부분 상승했다. 대장주 셀트리온이 4% 강세였고, 동서 씨젠 등이 5% 급등했다.

/김민지 기자

코스피가 4일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2020선을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9.50포인트(0.97%) 오른 2,027.99로 마감했다. 코스닥은 2%대 급반등했다. 코스닥지수는 15.69포인트(2.20%) 오른 730.03으로 거래를 마쳤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0.4원 내린 1165.5원으로 마감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 /연합뉴스

하이투자증권, 최대 연16.8% 추구 ELS 등 2종 공모 하이투자증권은 5일부터 7일 오후 1시까지 ELS 2종을 총 40억원 규모로 공모한다. 만기까지 상환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투자기간 중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으면 만기 시에 최초 제시수익률을 지급한다. 상품의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이다. /하이투자증권 제공

시소 타는 현대기아차, 하반기 환율 덕 볼까

원·달러 상승에 수익개선 기대
신흥국 수요 회복여부 관건

주식시장에서 오랜 침체에 놓여있던 현대기아차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주가는 최근 원·달러 환율의 가파른 상승세에 힘입어 오름세를 보이다 지난달 판매실적이 부진했다는 소식에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차는 전일 대비 0.35%(500원) 오른 14만4000원으로 장을 마쳤다. 현대차는 지난달 17일 장중 한때 12만3000원까지 떨어지며 신저가를 새로 썼다. 이후 가파른 상승세로 돌아서 9거래일 만인 지난달 30일까지 21.45%나 올랐다.

기아차도 전일보다 0.94%(400원) 올라 4만27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기아차는 지난달 13일 장중 4만200원까지 내려가며 신저점을 찍었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던 주가는 지난달 21일 전일 대비 3.06%, 27일 4.43%, 30일 2.57% 오르는 등 상승폭을 넓혀 지난달 31일까지 총 7.07% 올랐다.

현대모비스는 전일 대비 1.20%(2500원) 오른 21만원을 기록했다. 역시 지난달 17일 18만5500원까지 떨어져 신저가를 새로 쓴 이후 7거래일 만인 지난달 28일까지 15.36% 급등했다.

이들 주가가 신저점 이후 가파른 오름세를 보인 까닭은 원·달러 환율 상승에 있다.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달러화 가치가 오른 것. 지난 6월22일 1100.30원이던 환율은 지난달 31일 1172.20원까지 치솟았다.

전문가들은 환율 상승이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업종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며 자동차주를 원·달러 환율 상승의 수혜주로 꼽고 있다.

최중혁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이 10원 상승하면 현대차 연간 영업이익이 1.6% 늘어날 것"이라며 "미국의 금리인상 기대로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현대차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평했다.

아울러 하반기 실적 전망도 비교적 밝은 편이다.

장문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차의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가운데 3분기 매출액은 계절적 비수기임을 감안해 전년동기 대비 0.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단 투싼의 글로벌 확대 출시 효과가 온전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장 연구원은 이어 "최근 원·달러 상승과 중간배당 지급 등은 자동차 산업 전반에 악화됐던 투자 심리를 개선키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추세 상승을 이어가기 위해선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수요 회복과 이종통화 안정화 등의 산헹조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보배 기자 bobae@

점포 묶고 고객찾아 나서고 '영업망' 재편

금융사, 복합점포부터 아웃바운드까지 활발

금융권이 영업망 새판짜기에 돌입했다. 저금리·저성장 시대를 맞아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사에서는 은행·증권·보험 업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복합점포' 개설과 고객을 직접 찾아 나서는 '아웃바운드' 영업 등 다양한 전략을 내놓고 있다.

금융지주 계열사 간 칸막이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점포수를 줄이는 대신 하나로 합치거나 특화시킨다는 전략이다.

◆ 보험·은행·증권업무 한자리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복합점포의 확장이다.

NH농협금융그룹은 지난 3일 복합점포인 '광화문NH농협금융PLUS+센터'에 NH농협생명보험을 입점시켰다. 보험도 은행과 증권 업무를 본 후 한 자리에서 계약하고 상담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간 복합점포는 은행과 증권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한정됐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복합점포에 보험을 시범적으로 포함시키는 등 은행·계열사 간 연계영업을 허용함에 따라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복합점포 확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농협생명은 은행과 증권창구와 병렬로 배치된 업무창구에서 보험계약과 보험금 지급 등 보험관련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별도 상담공간을 마련해 보장설계와 재무설계 등 전문상담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농협금융은 부산지역에 복합점포를 추가로 개설해 연내 최소 2개 점포를 운영할 계획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하나은행·하나대투증권의 복합점포에 하나생명을 포함하고 본격적인 영업에 나섰다. 원스톱(One-stop) 금융서비스를 통해 그룹 시너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나생명은 복합점포 내 별도공간에 본사 직원을 파견하고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판매할 수 없는 (무)건강한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을 판매키로 했다.

아울러하나은행, 하나대투증권과 함께 고객자산관리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복합점포 취지를 살려 원스톱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지주 역시 시장 상황을 보며 연내 보험을 포함한 복합점포를 내놓을 계획이다.

◆ 영업점 재정비·비계열사 이종결합

타 금융사 간의 이종결합도 있다.

우리은행과 삼성증권은 지난 4월 은행 본점영업부에 '우리은행·삼성증권 금융복합센터'를 개점했다. 이날 문을 연 '금융복합센터'는 은행·증권 업무에 칸막이를 없앤 복합점포다. 비계열사간에 점포가 함께 들어선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센터는 우리은행의 본점영업부와 광양포스코금융센터, 삼성증권의 삼성타운지점 등 3곳에 상호 입점하는 BIB(Branch In Branch)형태로 운영 중이다. 또한 두 회사의 직원 5명이 교환 배치돼 고객들에게 은행과 증권업무와 관련한 서비스를 상호 제공한다.

한편 은행권에서는 특화 점포를 만들고 찾아가는 뱅킹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영업점 운영체계를 다시 꾸리고 있다.

특히 윤종규 KB금융 회장겸 국민은행장은 올 하반기 영업점 운영체계를 재정비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행장은 "현재 33개 지역본부는 고객의 실제 생활권에 기반을 둔 지역별 거점 중심 영업망으로 재편성할 것"이라면서 "전국의 1047개 영업점은 점주권 환경과 고객기반에 특화된 영업망 체계로 전환해 능동적인 방식으로 고객밀착 영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은 개별 점포가 갖기 어려운 기업금융이나 자산관리 등의 전문역량을 지역의 거점 점포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점주권 특성에 따른 ▲영업점 체제 개편 ▲창구 인력 강화와 재배치 ▲워크 다이어트(Work-diet) ▲창구 레이아웃(Lay-out) 개선 ▲상담전화 유입량 감소 노력 등을 추진키로 했다.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태블릿 PC 기반 뱅킹 시스템인 '모빌리티플랫폼'(Mobility Platform)을 활용하고 있다. 모빌리티 플랫폼은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고객이 원하는 곳에서 각종 은행 업무를 처리해주는 '찾아가는 뱅킹 서비스'다. 고객은 예금상품 가입과 카드 가입, 대출 신청 등 대부분의 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펀드상품 가입 업무도 가능하다. 이는 출시 1년 만에 5만 건 이상의 고객 신규 거래와 신고 실적을 기록했다. SC은행은 내년 중소기업 대출상품 등 기업고객을 위한 뱅킹 서비스도 추가로 탑재할 예정이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32

기업銀, 계좌이동제 대비 'IBK평생한가족통장' 판매

주거래고객 우대혜택 강화

IBK기업은행은 주거래고객 우대혜택을 강화한 패키지 예금상품 'IBK평생한가족통장'을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입출식, 적립식, 거치식 예금으로 구성된 이 상품은 계좌이동제를 대비해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출시됐다.

주거래 조건이 충족된 고객은 입출식통장을 이용할 경우 전자금융수수료와 자동화기기 출금·이체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환전이나 송금시 70% 환율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적립식과 거치식상품은 각각 연 0.3%p와 연 0.15%p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특히 적립식과 거치식 상품의 경우 대학교 학자금과 결혼, 출산, 주택구입 등의 사유로 중도해지 신청시 특별중도해지금리를 제공한다.

주거래로 인정되려면 ▲급여이체 또는 연금수급 ▲입출금통장 월평잔 100만원 이상 유지 ▲아파트관리비 또는 지로/공과금 3회 이체 ▲개인대출 보유 ▲신용(체크)카드 이용 월 30만원 이상 사용 ▲비대면 채널을 통해 적립식, 거치식 상품 가입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한편 기업은행은 상품 출시를 기념해 올해 말까지 'IBK평생한가족통장'의 입출식, 적립식, 거치식 상품을 모두 가입 시 OTP발생기를 무료로 증정한다. /백아란 기자

우리카드 '그레뱅뮤지엄' 입장권 할인

개관기념, 최대 4매까지

우리카드는 밀랍인형박물관 '그레뱅(Grevin) 뮤지엄' 개관을 기념해 특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내달 30일까지 두달 간 우리카드로 입장권을 결제한 고객은 1인당 4000원씩 동반자 포함 최대 4매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 혜택은 현장과 인터파크 예약 모두 적용된다.

또 뮤지엄에서 찍은 인증샷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고 우리카드 블로그에 이름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기프트카드 최대 50만원권과 VIPS 상품권, 배스킨라빈스 케이크 등 푸짐한 경품도 제공한다.

'그레뱅뮤지엄'은 1882년 프랑스 파리에서 설립된 밀랍인형 박물관으로 세계에서는 4번째,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서울에서 개관했다.

박물관에는 한류스타부터 스포츠스타, 세계 유명인사 등 80여 작품이 전시돼 있으며 다양한 전시 관람과 체험을 할 수 있다. /백아란 기자

영화 '협녀' 흥행실적 따라 우대금리 제공

우리銀 시네마정기예금 판매

우리은행은 롯데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관객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주는 '시네마정기예금 <협녀, 칼의 기억>'을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온라인전용 정기예금으로 8월 21일까지 가입가능하다. 총한도는 500억원 내로 가입금액 100만원 이상, 가입기간은 1년이다.

기본금리는 연 1.50%에 영화 관람객이 100만명을 돌파하는 경우 연 1.55%, 200만명을 돌파하는 경우 연 1.60%, 500만명을 돌파하는 경우 연 1.70%의 금리를 제공한다.

이와함께 우리은행은 상품 출시를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10일까지 시네마정기예금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협녀, 칼의 기억'영화예매권 총 2000매를 증정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시네마정기예금은 영화와 연계된 금융상품에 가입해 흥행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문화컨텐츠 연계상품"이라며 "여름 휴가시즌을 맞이해서 가족, 친구와 함께 영화도 관람하고 금리우대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13일 개봉예정인 영화 '협녀, 칼의 기억'은 고려 시대를 배경으로 세 검객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을 그린 사극 액션영화로, 전도연, 이병헌, 김고은 등이 출연한다.

/백아란 기자

해외건설 '제2중동' 중앙아시아 공략 속도

천연자원 풍부하지만 인프라 부족해 대형발주 기대
올해 수주액 54억4114만 달러… 지난해 보다 12배↑

저유가와 정세불안 등으로 중동 지역의 건설 발주가 줄면서 중앙아시아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풍부한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시설인프라가 부족해 앞으로도 대형 발주가 이어질 전망이다.

4일 해외건설협회 자료에 따르면 이날 현재 중앙아시아의 올해 수주액은 53억8082만 달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억3503만 달러)보다 12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대표적으로 중앙아시아에서 많은 수주실적을 올린 업체는 현대엔지니어링이다.

이 업체는 지난 4월 투르크메니스탄 국영석유공사가 발주한 정유공장 현대화사업을 9억4000만 달러에 수주했다. LG상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따낸 이번 사업은 수도 아쉬하바드로부터 서북쪽으로 500㎞ 떨어진 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휘발유, 경유의 유황성분을 제거하는 설비를 건설하는 공사다.

이어 이 업체는 현지에서 40억 달러 규모의 천연가스 합성석유(GTL) 플랜트 건설 사업도 따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26억 달러 규모의 우즈베키스탄 칸딤 가스처리시설도 수주했다.

이 밖에도 두산중공업은 지난 1월 카자흐스탄에서 3억 달러 규모의 발전소를 수주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월 현지 정부가 발주한 140만 달러 규모의 '동서도로 유료화 전략 수립 컨설팅사업'을 따냈다.

국내 업체의 중앙아시아 진출이 잇따르면서 전체 해외수주액 중 이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급상승하고 있다.

중앙아시아가 최근 국내건설사의 해외수주 '블루오션'으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 4월 방한한 호자무하메도프(왼쪽) 투르크메니스탄 석유가스광물자원 부총리와 송치호(오른쪽) LG상사 대표이사, 김위철(오른쪽 두번째)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가 청와대에서 투르크멘바쉬 정유공장 2차 현대화 사업 계약서와 가스액화 플랜트 건설사업 기본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지난 2009년 이 지역에서 수주한 공사는 4억4379만 달러로 전체 수주액 중 0.9%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듬해 19억4227달러로 2.7%로 상승했다. 이후 2011년(5.3%), 2012년(7.3%), 2013년(14.5%)으로 매년 비중이 급상승했다. 올해는 4일 현재 전체 해외수주액 중 20.3%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중앙아시아가 해외 발주처로 각광받고 있는데는 풍부한 천연자원에 비해 노후화된 플랜트 설비가 많기 때문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진출한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천연가스 매장량이 세계 4위다. 당국은 이를 활용, 최근 플랜트 산업과 함께 주택·교통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중앙아시아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은 최근 5년 간 국내총생산(GDP)이 평균 8% 이상 성장했다. 경제 성장에 따라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난 2013년 3월 총사업비 65억 달러에 달하는 '2013~2015년 전력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대형 공사를 잇따라 발주하고 있다. 또 현지 당국은 ▲사업 환경개선 정책 추진 ▲2015년 외국인투자법 개정 ▲세금 감액 등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앙아시아의 경우 지리적인 이점과 풍부한 천연자원, 경제성장 등으로 발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각국 정부와 협력을 공공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석 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재개발·재건축 '로열층' 잡아라

비로열층과 가격차 최대 6000만원 이상

올해들어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일반분양분이 많아 로열층 분양 받기가 쉬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대거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분양권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DMC파크뷰자이(DMC가재울 4구역) 전용 84㎡ 24층(로열층)은 5억663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반면 비로열층인 5층은 5억540만원에 계약이 체결되며 6000만원 이상의 가격 차를 보였다. 지난 6월 서울 영등포구 신길7구역의 '래미안 에스티움' 전용 59㎡도 12층(로열층)이 4억4920만원, 2층이 4억870만원에 거래되며 4000만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올 하반기 대표적인 분양 단지는 현대건설이 이달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청계'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대농·신안주택을 재건축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0층 8개동 전용면적 40~84㎡ 총 764가구 규모다. 이중 일반분양분은 전체의 66%인 504가구다.

삼성물산이 다음달 공급하는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S'는 일반분양 가구수 총 148가구(전용면적 59~134㎡) 중 5층 이상 기준층에 물량 80%가량을 배정했다. 같은 달 대림산업은 'e편한세상 신금호'에서 일반분양분 114가구를, 롯데건설은 '동대문 롯데캐슬 노블레스'에서 252가구를 각각 분양한다.

삼성물산이 오는 10월 분양하는 '래미안 이수역 로이파크'도 총 668가구 중 일반 분양 물량이 413가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12곳 중 1순위에 모집 가구수를 모두 채운 단지는 11곳이다. 이중 6개 단지는 두자릿 수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분양 실적보다 높다. 지난해 7월까지 분양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14곳 중 모집가구수를 채운 단지는 8개단지였다. 이중 1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는 한 곳도 없었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이 좋아질수록 입지여건이 우수한 로열층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일반분양 물량 비율이 높은 단지를 노리는 것이 로열층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석 기자

대림산업 'e편한세상 신금호' 내달 분양

역세권·초중고 12곳 인접
에너지 저감시스템 적용

e편한세상 신금호 조감도. /대림산업 제공

대림산업은 오는 9월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금호15구역을 재개발한 'e편한세상 신금호'를 분양한다고 4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1층, 17개동, 전용면적 59㎡~124㎡ 총 1330가구 규모다. 이중 일반분양분은 ▲59㎡ 5가구 ▲84㎡ 154가구 ▲116㎡ 33가구 ▲124㎡ 15가구 등 207가구다.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 이용 시 시청·광화문 권역(CBD)까지는 1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성수대교, 동호대교를 통해 강남권 이동도 수월하다. 단지 1.5㎞ 내에 2·5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등의 환승역인 왕십리역도 인근에 있다.

금호초교, 금북초교 등 단지 인근으로 초교 6곳, 중학교 3곳, 고교 3곳이 인접하고 있다. 단지 내에는 금호고등학교가 오는 2017년 개교할 예정이다. 응봉공원과 응봉근린공원, 대현산공원, 서울숲도 인접하다.

아파트 내부는 태양광 발전시스템과 우수 재활용, 지열 냉난방 등 에너지 저감시스템을 적용했다. 대부분의 가구가 남향 위주로 배치돼 일조권과 채광이 우수하다.

각동 주출입구에는 대림산업이 자체 개발한 오렌지로비(일부 동 제외)가 설치된다.

견본주택은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1번지(도산공원 사거리에서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 방면 우측)에 개관할 예정이다. 입주는 오는 2017년 12월 예정이다. /김형석 기자

중흥종합건설 '진해 남문 시티 프라디움 2차' 이달 중 분양

중흥종합건설은 이달 중에 창원시 진해구 남문지구 A2-2블록에 '진해 남문 시티 프라디움 2차'를 분양한다고 4일 밝혔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에 위치한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11개동 전용면적 74~84㎡ 총 876가구 규모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오는 2020년까지 52.9㎢ 부지에 물류·유통·국제업무 등 20개 지구(거주자 18만여명)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중 남문지구는 주거지와 산업시설이 혼재된 108만 8000㎡의 복합개발단지로 개발된다. 연구·개발(R&D)센터, 첨단 제조산업단지 등 약 1만5000명의 종사자를 수용한다.

진해대로(2번국도)를 이용하면 진해구청을 10분대에, 부산 하단까지 30분대에 도착할 수 있다. 웅동~장유 간 지방도로가 개통되면 김해로의 접근성도 개선된다. 단지 인근에는 웅천초, 웅천고 등이 인접해 있다. 도보 통학이 가능한 초·중학교도 신설된다. 단지 바로 앞에는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다양하고 꾸준한 개발호재와 글로벌 테마파크 등의 개발호재에다 창원 현동 시티 프라디움 1~3차, 진해 남문 시티 프라디움 1차 등의 성공적 분양으로 이번 2차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가 높다"고 말했다. /김형석 기자

눈치보던 '삼성 전기차' 본격 시동거나

삼성전기·삼성SDI이어 삼성전자도 가담 주목
"스마트폰 이후 먹거리… 애플에 자극받은 듯"

삼성이 전기자동차 사업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특히 전장사업에 초점을 맞추며 차세대 성장 동력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각에서는 애플의 전기차시장 진출에 위기감을 느낀 삼성이 동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기와 삼성SDI는 자동차 관련 사업을 잇달아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최근 사업구조 재편을 마무리한 삼성전기는 자동차 부품 사업 확대를 목표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삼성전기는 수동부품, 카메라, 무선충전 기반의 자동차용 부품 라인업을 늘릴 예정이다.

현재 삼성전기는 시장에 적층세라믹콘덴서(MLCC)와 후방카메라 등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고 있지만 매출 비중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삼성전기는 최근 2분기 실적 발표 후 기업설명회(IR)에서 "(자동차 관련)신사업 준비를 3~4년 전부터 해오고 있었다"며 "강점을 활용하고 핵심역량을 융합해 신규사업으로 성장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삼성SDI는 자동차용 배터리 등 중대형 전지사업에 무게를 싣고 있다. 중국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등 소형전지사업의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동차용 배터리에서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이다. BMW, 크라이슬러 등에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를 공급하는 삼성SDI는 기술개발과 설비 투자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삼성SDI의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모듈. /삼성SDI 제공

삼성은 전기차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삼성전기와 삼성SDI가 전기차 관련 부품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까지 가세하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삼성은 배터리와 정보통신기술(ICT) 등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을 갖고 있다. 완성차 경험과 역량도 충분하다"며 "테슬라도 자동차를 만들던 회사가 아니다. 시장이 무르익고 파이가 커지면 삼성도 전기차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한편 시장조사기관 트랜스퍼런시 마켓 리서치는 전기차 시장 규모가 2019년에 2716억7000만 달러(약 317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한진 기자 hjc@metroseoul.co.kr

충북혁신센터·LG '특허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공모전으로 10건 선정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충북혁신센터)가 LG와 함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특허 사업화 전국 공모전에서 아이디어 10건을 선정하고 이를 사업화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LG와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개방한 특허와 사업화 신청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활용한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모두 234건의 특허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사업 지원분야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10건의 사업화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충북혁신센터는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에 대해 시제품 제작과 이를 위한 기술 및 마케팅 지원, 그리고 자체 보유 기술의 특허 권리화 자금 지원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4일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특허 사업화 전국 공모전 시상식'에서 선정된 사업화 아이디어 제안자 10명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G 제공

이날 충북혁신센터에서는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한 시상과 함께 향후 이들 아이디어의 사업화 추진의 지를 다짐하는 자리인 '특허 사업화 공모전 시상식'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이정환 LG특허협의회의장, 윤준원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비롯해 박종찬 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 남창현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등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충북혁신센터에 마련된 '특허 서포트존'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7곳이 142건의 특허를 제공받아 신제품 개발을 통한 판로 개척 등 사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10개 기업에 60건의 특허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조한진 기자

LG전자 국내 최초 에너지효율 1등급 획득

'울트라HD TV' 6종

LG전자는 울트라HD TV가 최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에너지효율 1등급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국내시장에 출시된 울트라HD TV가 에너지효율 1등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사측은 설명했다.

이번에 1등급을 받은 LG 울트라HD TV는 2개 시리즈 6종(모델명: 65/55/49/43UF6800, 49/43UF6400)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의 소비효율 등급부여 지표가 1등급에 해당되는 60 이하로 나왔다.

이 제품들은 RGBW 기술을 적용한 패널을 적용해 크기와 해상도가 같은 기존 LCD 패널보다 밝기는 약 50% 개선되고, 소비전력은 약 35% 절감할 수 있다.

LG 울트라HD TV(UF6800)

에너지효율 1등급의 LG 울트라HD TV는 수신한 영상신호의 밝기를 분석해 어두운 영상을 볼 때는 화면의 밝기를 낮추고, 밝은 영상에서는 밝기를 높이는 APL 디밍 기능을 탑재했다. 이 기능은 소비전력을 낮추면서 명암비는 높여준다.

이 제품들은 지난달 말 소비자시민모임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 등이 후원한 '제19회 올해의 에너지위너상'에서 녹색기기부문 에너지위너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임은정 기자 eunj71@

효성, 적정기술 개발준비 워크숍 진행

대학생 봉사단 '블루챌린저'

효성은 대학생 글로벌 봉사단 블루챌린저가 안양연수원에서 워크숍 중이라고 4일 밝혔다.

21명의 효성 블루챌린저(적정기술 봉사단 20명, 리포터 봉사단 1명)는 전날 발대식을 갖고 2박 3일간의 적정기술 워크숍을 시작했다.

발대식에는 홍성욱 적정기술미래포럼 대표와 국제NGO(비정부기구) 기아대책 실무진이 참석했다.

효성 블루챌린저는 워크숍이 진행되는 3일간 적정기술 교육 및 아이디어 경진대회, 교육 봉사 및 문화 교류 준비, 베트남 환경 조사 등 베트남 현지 봉사활동의 전초전을 치르게 된다.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이란 그 기술이 사용되는 공동체의 사회적·문화적·환경적 조건을 고려해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기술이다.

2011년에 진행한 블루챌린저 1기 대원들은 연기가 나지 않는 화덕인 '블루스토브'와 빗물을 걸러주는 정수장치 '아이레드(IRED)'를 개발해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보급한 바 있다.

이번 블루챌린저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베트남 까오방성 응웬빈현에서 블루스토브 보급과 사용 교육, 가정 방문을 통한 현장 필드 리서치, 교육 봉사 활동 및 문화 교류 활동을 펼치게 된다.

그 후 현지 봉사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적정기술 제품 개발을 진행한다.

최우수 적정기술로 선정된 제품은 이듬해 1월에 현지 보급될 예정이다.

/이정필 기자 roman@

동부대우전자, 中진출 2년만에 250개 매장 확보

동부대우전자(대표 최진균)가 중국 시장 진출 2년만에 단독 매장 250개를 확보하며 시장 안착에 성공했다.

동부대우전자는 7월 말 기준 중국 상해와 북경 등 총 8개성, 120여개 도시에 256개 매장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중국 내수경기 침체 속에서도 올 상반기 전년대비 2배 이상 괄목할 만한 매출신장을 기록한 동부대우전자는 연말까지 총 300개 매장을 확보하고 현지 맞춤형 제품라인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협소한 가옥 구조에 맞춰 출시한 벽걸이 세탁기 '미니'는 누적 판매량 8만대를 돌파했다. '자 보관 3도어 냉장고'도 현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동부대우전자는 또한 중국 소비자가 식수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냉장실 내부에 생수 저장케이스를 두고 워터펌프를 활용해 냉동실쪽으로 물을 보내 시원한 물과 얼음을 제공하는 양문형 냉장고도 출시했다. 하반기에는 프리미엄 소형가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콤비냉장고와 1도어 인터리어 냉장고 등 신제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최강 연비 가리자" 하반기 디젤차 불꽃 경쟁

티볼리·쏘나타·K5 등 국내차 디젤라인 강화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디젤을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판매가 전체 차량의 절반을 넘어서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디젤차의 인기비결은 기름값에 민감한 고객들이 연비가 좋은 차를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실제 가솔린과 엔진이 동급차종일 경우 디젤 엔진이 연비가 상대적으로 높고 힘도 좋다. 소음문제가 있지만 최근들어 기술력이 향상되면서 예전보다 많이 조용해졌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신규 등록된 완성차 5사의 차량 89만8396대 중 51.9%인 46만6596대가 디젤차인 것으로 집계됐다.

쉐보레 트랙스 디젤

2016년형 쏘나타

상반기 판매 상위 10위권에는 1위인 현대차 포터를 비롯해 기아차 쏘렌토, 현대차 싼타페, 기아차 카니발, 기아차 봉고트럭, 현대차 투싼 등 디젤차 6종이 포함됐다.

쌍용자동차가 티볼리 디젤모델을 출시한데 이어 현대·기아차도 주력 차종인 2016년형 쏘나타와 신형 K5 디젤모델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디젤 돌풍에 가세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디젤차 비중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지엠의 쉐보레 트랙스도 해외에서 인기를 한국에서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한국지엠은 디젤 자동차에 대한 높아진 한국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트랙스 디젤 모델의 사전계약판매에 돌입했다.

트랙스는 연초 이후 조금씩 판매대수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내수 자동차 시장의 규모를 고려하면 월간 판매량은 30위권으로 한국지엠의 상반기 내수 판매량인 8만5265대의 7.57% 수준이다.

디젤차 강세 현상은 수입차 쪽에서도 확인된다. 상반기에 팔린 수입차 11만9832대 중 디젤차는 68.4%인 8만2023대였다.

BMW의 주력 모델이자 디젤차인 520d의 경우 상반기에 같은 5시리즈 가솔린 모델인 528i(1222대)에 비해 3배 가까운 3596대가 판매됐다. 여기에 520d xDrive(2232대)까지 합치면 5시리즈 디젤 모델 판매량은 약 6000대로 늘어난다.

아우디 차량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 판매된 1만4559대 중 1010대를 제외한 1만3549대가 디젤차였다.

하반기에는 국산차 판매 비중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대차는 지난달 2일 2016년형 쏘나타를 출시하면서 1.7 디젤 모델 등 3가지 모델을 포함시켜 라인업을 7종으로 늘렸다. 1.7 디젤은 2016년형 쏘나타 전체 모델 중 30%의 비중으로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16일 공식 출시된 신형 K5의 디젤 모델도 16.8㎞/ℓ의 높은 연비 등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종훈 기자 fun@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32

현대차, 쏘나타 고객에 영화 쏜다

출시 30주년 기념 이벤트 車영화관에 600명 초청

현대자동차는 쏘나타 출시 30주년을 맞아 고객 초청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현대차는 오는 22~23일 송도 도심 서킷 내에 특설 자동차 영화관을 마련하고 쏘나타 보유 고객 600명을 초청해 영화관람 이벤트를 진행한다.

현대차는 쏘나타 30주년을 기념해 자동차극장 영화관람 초청 이벤트를 22~23일 실시한다. /현대차 제공

현대차는 쏘나타가 지난 30년간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색다른 경험과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현대차는 이번 행사를 위해 KSF(코리아스피드페스티벌)가 열리는 송도 도심 서킷 내 총 1만7850㎡ 공간에 240㎡ 크기의 초대형 스크린과 차량 150대가 주차 가능한 자동차 전용 상영관을 마련했다.

이번에 상영되는 영화는 '협녀, 칼의 기억'으로 이병헌, 전도연, 김고은 등 배우가 출연하는 작품이다.

이번 행사는 22일과 23일 각각 300명씩(자동차 기준 150대, 자동차 1대당 2인 탑승 기준)을 초청한다.

참여를 원하는 쏘나타 보유 고객은 이날부터 16일까지 현대차 홈페이지(www.hyundai.com)의 이벤트 창에서 관람 날짜를 선택해 응모할 수 있다.

추첨으로 선정된 고객에게는 17일 개별 연락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정용기 기자

"청계천 삼일교 밑에서 더위 식히세요"

한화, 시민 휴식공간 마련 지역상권 활성화도 기대

서울의 도심 휴식공간인 청계천 삼일교 하부 공간이 한화그룹과 서울시민들의 참여로 매력적인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한화는 서울시와 함께하는 '72시간 도시 생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72시간 동안 청계천 삼일교 아래 자투리 공간에 '한화 불꽃길'을 조성했다고 4일 밝혔다.

청계천 다리 삼일교 밑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화 불꽃길'로 탈바꿈했다. 청계천을 찾은 시민들이 즐거운 표정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화 제공

한화는 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이 길이 향후 휴식과 문화가 공존하는 청계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화는 문화가 흐르는 청계천 수변공간을 조성해 7일 저녁 8시 인디밴드의 공연을 시작으로 정기 공연 등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일조한다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한화는 이번에 설치된 삼일교 한화 불꽃길에 광복 70주년을 맞아 선조들의 희생정신의 의미를 부여했다.

삼일교는 1919년 3월 1일 민족열사들의 행진으로 시작 된 3·1운동을 기념해 이름 지어진 삼일로에 위치한 청계천 다리다.

한화 불꽃길은 여동현 작가의 작품 '파라다이스' 속의 아름다운 꽃들을 업그레이드해 벽화로 옮겼다.

특히 밤이 되면 꽃 봉오리마다 켜지는 60개의 LED(발광다이오드) 불빛은 청계천의 물길과 어울려 아름다운 불꽃길로 피어난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한화와 서울시가 함께하는 72시간 도시 생생 프로젝트'는 서울시내 시민들이 즐겨 찾지만 시설이나 문화가 부족한 자투리 공간을 찾아 서울시민 100여명의 아이디어와 참여를 통해 72시간(3일)만에 특색 있고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정용기 기자 yonggi@

FCA '올-뉴 지프 레니게이드' 첫번째 SUV 모델… 내달 출시

FCA 코리아는 소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올-뉴 지프 레니게이드(사진)를 9월에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프 브랜드는 올-뉴 레니게이드의 출시로 소형 SUV에서 준중형 컴패스, 중형 체로키, 대형 그랜드 체로키, 정통 오프로더 랭글러로 이어지는 제품 라인업을 갖추게 된다.

올-뉴 레니게이드는 아이코닉한 외부 디자인, 최강의 오프로드 성능과 다이내믹한 온로드 주행 성능, 오픈-에어 선루프 시스템, 높은 공간 효율성, 지형설정 시스템, 9단 자동변속기, 다양한 안전 사양 등을 갖췄다. /정용기 기자

한국지엠, 디젤차 사면 휴가비 준다

현금지원·무이자 할부

한국지엠 쉐보레는 이달 디젤 차량 현금 지원과 6개 차종 무이자 할부를 시행한다.

쉐보레는 유로5 디젤차량을 대상으로 최대 캡티바 280만원, 말리부 210만원, 크루즈 190만원, 올란도 150만원을 지원한다.

또 여름 휴가비를 알페온 200만원, 말리부와 크루즈 가솔린 140만원, 2015년형 스파크 120만원 등 쉐보레 전 라인업에 걸쳐 제공한다.

2015년형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사진), 알페온 등 6개 차종을 대상으로 무이자 할부도 지속 시행한다.

크루즈와 말리부 디젤 모델과 캡티바는 선수율을 15%로 낮춰 고객의 초기 구입 부담을 낮췄다.

아베오의 할부 이율은 기존 3.9%에서 1.9%로 낮추고, 최대 8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임팔라를 사전 계약하는 고객에게는 BOSE 미니II 블루투스 스피커를 증정한다. /이정필 기자 roman@

Music by Richard Rodgers
Lyrics by Oscar Hammerstein II
New Book by Douglas Carter Beane
Original Book by Oscar Hammerstein II

8/11 2PM FIRST TICKET OPEN

2015.9.12-11.8 충무아트홀 대극장

출연_ 안시하 서현진 윤하 백아연 엄기준 양요섭(BEAST) 산들(B1A4) 켄(VIXX) 서지영 홍지민 이경미 가희 정단영 임은영 김법래 장대웅 박진우 황이건

프로듀서_ 김선미 연출_ 왕용범 음악감독_ 이성준 안무_ 홍유선 무대디자인_ 서숙진 조명디자인_ 민경수 음향디자인_ 권도경 영상디자인_ 송승규 의상디자인_ 조문수 분장디자인_ 양희선 소품디자인_ 조윤형 기술감독_ 이유원

주최 SBS 이데일리 제작 (주)엠뮤지컬아트 제작지원 신한캐피탈 제작대행 (주)엠뮤지컬 후원 신한금융그룹 홍보 SHOWHOLIC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AUCTION 티켓 1566-1369 문의 (주)엠뮤지컬아트 02-764-7857~9 ENTI 1644-5210

Orchestrations by Danny Troob Music Adaptation & Arrangements by David Chase

Exclusive Asian Representation by Broadway Asia Company, LLC www.broadwayasia.com info@broadwayasia.com

SKT '가상화 교환기' 국내 최초 상용화

LTE 교환기 장비구축 시간 단축·용량 증설 용이 등 빠른 통신서비스 제공·트래픽 증가 대처에도 유용

SK텔레콤이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위한 '가상화 LTE 교환기(vEPC)'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했다고 4일 밝혔다.

vEPC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하드웨어 형태의 특정 장비를 구축해야 하는 것과 달리 통신장비를 가상화시켜 소프트웨어 형태로 범용 서버에 설치하는 것이다.

최대 장점은 기존의 LTE 교환기 장비의 구축에 수 개월 정도 소요됐던 것과 달리 vEPC는 수 시간이면 설치할 수 있다는 것. 또 신규 장비의 구축 없이 추가 서버 할당 만으로 용량 증설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SK텔레콤은 신규 통신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까지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고 트래픽 증가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응하는 등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vEPC를 IoT 서비스용으로 상용화하며 IoT 서비스 시장 확장으로 예상되는 데이터 트래픽의 증가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SK텔레콤은 vEPC와 함께 가상화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국제 표준 시스템인 '오케스트레이터(Orchestrator)'도 상용 서비스에 도입했다. 오케스트레이터는 가상화된 네트워크 기능들의 관리와 자원 할당 등을 위한 전용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서로 다른 업체들이 개발하는 가상화 장비들로 안정적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4일 서울 관악구 SK텔레콤 보라매 사옥에서 SK텔레콤의 구성원들이 사물인터넷 서비스(IoT)를 위한 가상화 교환기 'vEPC'를 운용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실제로 SK텔레콤은 지난 모바일 월드콩그레스 2015(MWC 2015)와 MWC 상하이 2015 등 국제ICT전시회에서 국내 이동통신사업자로는 유일하게 오케스트레이터를 시연해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기술 우수성을 인정 받은 바 있다.

박진효 SK텔레콤 네트워크기술원장은 "vEPC와 오케스트레이터 상용화를 통해 네트워크의 구축과 관리, 운용 수준을 한 단계 진화시켰다"며 "앞으로도 차세대 네트워크 진화를 위한 핵심 기술들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4일 서울 용산 LG유플러스 본사에서 사내 모델들이 050 안심 300 부가서비스 출시를 알리고 있다. /LG유플러스 제공

LGU+ '050안심번호' 통화료 인하

월3300원·무료통화 300분 택배·콜택시·대리운전 등 생계형 이용자들에 유용

LG유플러스는 택배 기사 등 050 번호로의 발신통화가 많은 고객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050 안심 300분' 부가서비스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이번에 선보인 '050 안심 300분'은 부가세를 포함한 3300원으로 050 번호로의 통화를 매월 300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한 달에 300분을 사용하는 고객의 경우 현재 3만5640원(부가세 포함)을 부담해야 하나 3300원에 이용 가능하게 된다. 매달 3만2340원을 절감할 수 있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050번호와 통화가 많은 택배, 콜택시, 대리운전, 신용카드 배송 등의 업종 종사자가 혜택을 볼 전망이라고 LG유플러스는 설명했다.

/정문경 기자

한화큐셀, 후쿠시마에 태양광모듈 공급

한화큐셀이 원전 사고가 난 일본 후쿠시마에 태양광 모듈을 공급한다.

4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한화큐셀은 최근 일본 종합상사 마루베니와 후쿠시마에 건립될 52.5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에 모듈을 전량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한화큐셀은 발전소의 상업운전이 시작되는 2017년 6월까지 19만여개의 모듈을 공급하게 된다.

한화큐셀은 지난해 후쿠시마의 폐골프장 부지에 건립되는 태양광 발전소 모듈 공급계약을 맺은 바 있다.

한화큐셀은 일본 태양광 시장에서 30%가 넘는 모듈을 점유해 출하량 1위를 기록 중이다. /이정필 기자

CJ헬로비전, 2분기 영업익 275억, 전년비 0.5%↓

"결합상품 경쟁 심화로 매출·가입자수 감소"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CJ헬로비전(대표 김진석)은 올해 2분기에 영업이익 275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 감소했다고 4일 공시했다.

매출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3023억, 20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 30.9% 증가했다.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은 2.4%, 매출은 3.3%, 당기순이익은 55.1% 늘었다.

CJ헬로비전 측은 방송통신융합시장에서의 유·무선 결합상품 공짜 마케팅, 보조금 확대 등 경쟁 심화로 가입자가 소폭 줄어들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소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당기순이익은 수익성 중심의 사업구조 개선, 장기 차입금 상환을 통한 이자비용 감소 등으로 인해 증가했다고 밝혔다.

2분기 방송과 인터넷, 인터넷전화 가입자 수는 전분기보다 각각 1만2000명, 1만4000명, 1만6000명씩 감소했다. 이에 따라 각 서비스별 매출도 소폭 감소한 1015억원, 334억원, 141억원을 기록했다.

주력 사업인 디지털케이블방송 가입자는 지난 6월말 기준 251만8000명으로 1분기 가입자보다 2만1000명 순증했다.

디지털 전환율은 61%이며 2분기 디지털케이블방송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은 1만787원으로 전분기 보다 50원 상승했다.

전분기 대비 2분기 실적에서 알뜰폰(MVNO) 사업의 경우 매출은 전분기 대비 16% 성장한 716억원을 기록했다. 가입자는 2만5000명 순증해 88만 1000명이 이용하는 등 매출과 가입자수가 동반 성장했다.

4명중 1명이었던 LTE 가입자가 3명중 1명으로 확대되는 등 매출의 질적 개선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헬로모바일의 2분기 ARPU는 전분기 대비 2.2% 개선된 1만9507원을 기록했다.

신성장동력으로 2010년부터 추진해 왔던 N스크린 서비스 '티빙'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티빙 매출은 전분기 대비 13.2% 증가한 49억원을 기록했다.

/정문경 기자

다음카카오 케이벤처그룹, 車수리 앱 '카닥' 인수

다음카카오의 투자전문 자회사인 케이벤처그룹은 자동차 외장수리 견적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카닥의 지분 53.7%를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4일 밝혔다.

카닥은 '카닥' 앱으로 자동차 수리 업체들과 이용자들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며 누적 거래액 100억원을 기록한 모바일 플랫폼 기업이다.

카닥 앱은 전국 주요 지역 자동차 수리업체들과의 제휴를 기반으로 이용자가 자동차의 파손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올리면 업체들의 비교 견적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카닥 홈페이지 캡쳐

박지환 케이벤처그룹 대표는 "이용자들이 카닥을 이용해 가격 불안 없이 효과적인 업체를 선택하는 동시에 업체들은 이용자 접점과 수익 확대의 기회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케이벤처그룹은 인수 이후 카닥의 독립적·자율적인 경영을 지원하고 카닥이 보유한 노하우가 다음카카오의 자산과 경쟁력을 만나 혁신적인 O2O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신동빈 최선은 롯데를 나누는 것"

지분없는 롯데 사장단의 신동빈 지지 "아무런 영향 없어"
홀딩스 주총 표대결 이겨도 호텔정기주총 이사 해임 전망

신입사원들과 점심을 나누는 신동빈 회장. 그는 신입사원들에게 "롯데그룹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롯데그룹 제공

4일 롯데그룹 계열사 사장단이 신동빈(60) 회장 지지 선언을 발표하고 신 회장도 현장경영에 적극 나서는 등 한국롯데의 경영권자임을 과시하고 나섰지만 롯데가의 경영권 분쟁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가의 경영권 싸움 구도는 실질적인 지분을 나눠 가진 신격호(94) 롯데총괄 회장·신동주(61) 롯데홀딩스 전 부사장 이하 신 씨 일가와 신 회장·롯데홀딩스 이사회 이하 사장단의 구도다. 지분만으로 보면 신 총괄회장 측이 이사회와 경영자로 이루어진 신 회장 측보다 우세하다.

신 회장이 전날 롯데의 숙원 사업인 롯데월드타워 공사 현장에 이어 이날 직접 계열사 현장 방문에 나선 것도 한국롯데에서 위협받는 경영권에 직원들이 흔들릴까 내부 결속에 나선 것으로 보이지만 신 회장의 입지가 달라질 것은 없다.

신 회장은 롯데인재개발원 오산연수원을 방문, 신입사원들과 만나 "롯데그룹의 경영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고 말했다.

하지만 신 회장은 이달 말로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이사 자리가 해임될 수 있는 처지다.

신 회장은 롯데홀딩스 지분 19%(추정) 내외를 갖고 있을 뿐이다. 반면 신 총괄회장은 혼자서만 롯데홀딩스 지분 55.65%(본인명의 28%·광윤사 27.65% 추정)를 갖고 있다. 신 회장이 아무리 이사회와 주주들을 대동해도 아버지의 지지 없이는 롯데를 정복하기는 힘들다.

한국롯데의 지배자인 'L투자회사' 역시 신 총괄회장의 손에 있는 것으로 추측되며 신 회장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비록 한국롯데 사장단이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사장단은 전문경영인일 뿐 롯데의 후계를 결정할 권한은 갖지 못한다. 사장단 중 소수가 롯데 관련 지분을 갖고 있다 해도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창립자이자 롯데의 총수인 아버지의 지지를 받는 신 전 부회장과 전문경영인과 이사회의 지지를 받는 신 회장의 대결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는 것 같다.

업계 관계자는 "사장단이 현 회장을 지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들은 고용된 전문경영인일 뿐 후계싸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며 "신 회장의 측근들인 사장단과 이사회는 이번 싸움에 자신들의 사활이 걸렸다는 것을 알 것이다. 신 회장의 패배는 곧 자신들의 패배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이 롯데홀딩스 주총과 한국롯데의 주총에서 3분의1이상 의결권을 확보한다면 임기 중 이사직 해임은 방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사의 해임은 임기 중에는 주총 참석주주 3분의 2이상 동의를 통해 결정되고 이사의 중임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롯데홀딩스 주총 표 대결에서 이긴다해도 신 총괄회장이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어 2017년 호텔롯데 정기주총에서 본인의 해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 이사 임기 만료일은 2017년 2월18일이다. 신 회장의 임기는 길어야 1년 반 정도이다.

신 총괄회장은 롯데홀딩스 과반수 지분뿐만 아니라 한국롯데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거의 모든 지분(L투자회사 72.65%+ 롯데홀딩스 19.07%)을 손에 쥐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신 회장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은 '롯데를 나누는 방향'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상장 앞두고 대표 원정 도박 의혹?

네이처리퍼블릭 "사실 아니다" 입장 밝혀 상장에 영향 미칠까 우려

연말 상장을 앞둔 화장품 브랜드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50·사진)대표가 해외원정도박 의혹에 휘말렸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국내 기업인들이 동남아 일대 도박장에서 '바카라' 도박을 벌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네이처리퍼블릭의 정운호 대표가 연루된 단서를 포착했다.

이날 한 매체는 정 대표의 도박 혐의 액수가 수십억 원이며 현지에 있는 폭력조직원에게서 칩을 외상으로 빌려 사용한 뒤 국내에서 갚았는지, 도박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렸는 지 등을 검찰이 확인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네이처리퍼블릭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네이처리퍼블릭 관계자는 "정운호 대표는 검찰로부터 어떤 조사 요청이나 통보를 받은 적도 없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보도에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연내 추진 예정인 상장과 관련해서는 "이번 이슈가 상장 준비에 영향을 미칠 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며 일정이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을 아꼈다.

정운호 대표는 2003년 브랜드숍 더페이스샵을 성공적으로 내놔 중저가 화장품의 성공 신화로 불리는 인물이다. 2005년 더페이스샵의 지분 일부를 사모펀드에 매각했고, 이 후 2010년 LG생활건강이 더페이스샵의 지분 전체를 사들였다.

정 대표는 2010년 네이처리퍼블릭의 지분 100%를 인수하며 화장품 업계로 다시 돌아왔다.

/김수정 기자 ksj0215@

/롯데하이마트 제공

폭염·열대야에 에어컨 '불티'

하이마트, 보상판매 연장 이달 말까지 카드결제 행사

폭염과 열대야로 에어컨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4일 롯데하이마트(대표 이동우)에 따르면 무더위가 이어졌던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일주일간 에어컨 매출액은 직전 일주일(7월21일~27일)보다 약 80%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200% 증가했다.

특히 낮 최고기온이 36도가 넘는 찜통더위가 계속된 대구 지역 하이마트의 에어컨 매출액은 지난 주 대비 250%, 전년 대비 590%나 급증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에어컨 보상 판매를 이 달 중순까지 연장한다.

삼성전자 에어컨 보상판매 대상 제품을 구매하고 기존에 설치된 에어컨을 설치기사에게 반납하면 제품에 따라 최고 60만원의 캐시백을 지급한다. 기존 보유 에어컨의 브랜드는 무관하다.

8월 말까지 행사카드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캐시백과 최대 24개월 무이자할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성현 기자

현대百, 女임원 7명 중 6명 '한섬' 소속

현대백화점그룹(대표 김영태)의 여성 임원 7명 중 6명이 계열사 한섬에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현대백화점그룹의 여성 임원은 모두 7명으로 6명은 한섬에, 나머지 1명은 현대백화점에 각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영희 상무(52)와 이세리 상무(51), 양삼례 상무(48), 이명진 상무(46), 홍현아 상무(44), 윤현주 상무(43) 등으로 모두 디자인 분야 업무를 맡고 있다. 현대백화점의 여성 임원 1명은 홍정란 상무(49)다. 홍 상무는 현대백화점그룹의 여성 임원 중 유일한 자사 출신으로 킨텍스점 점장이다.

/박상길 기자

CJ제일제당, 불황에도 두 자릿수 성장

비비고 등 대형 브랜드 호조
상반기 영업익 전년비 80.6%↑

매출 3조 9663억원, 11.3%↑
순이익 1547억원, 107.7%↑

CJ제일제당 2015년도 상반기 실적 (대한통운 제외, 단위:억원)

	2014년 상반기	2015년 상반기	전년비 증감률
매출액	35,635	39,663	11.3%
영업이익	1,857	3,353	80.6%
당기순이익	745	1,547	107.7%

CJ제일제당(대표 김철하)이 장기화되고 있는 내수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두 자리 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CJ제일제당은 올 상반기 매출(대한통운 제외)이 3조966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353억원으로 80.6% 상승했다. 2분기 영업이익은 1917억7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4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도 각각 11.94%와 75.31% 늘어난 3조1650억원과 623억2900만원을 기록했다.

회사 측은 "2년 전부터 식품부문을 비롯해 전 사업부문에서 고강도 구조혁신활동과 R&D 투자를 지속한 결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식품의 상반기 매출은 2조420억원으로 전년비 7.7% 증가해 내수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유지했다. 특히 비비고 냉동제품군, 햇반 등 대형 브랜드 제품의 판매 호조세가 지속돼 가공식품 분야 매출이 전년비 14.4% 상승하며 두 자리 수 성장률을 나타냈다.

바이오와 제약부문을 아우르는 생명공학부문의 상반기 매출은 전년비 16.6% 상승한 1조541억원을 기록했다. 바이오 사업부문 매출은 지난해 4분기부터 성장세를 유지하며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 바이오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981억원 늘어나며 흑자로 전환됐다. 제약부문은 신규 전문의약품(ETC) 위주의 판매에 주력하고 음료제품의 판매가 늘며 영업이익이 지속 증가했다.

생물자원 부문의 매출액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베트남과 중국 등 해외 시장에서의 판매량이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8702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중국 사업 구조혁신 효과 및 베트남 생산시설 증설로 인한 사료 매출 성장이 전체 성장을 견인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기화되고 있는 내수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기술, 혁신제품에 집중하고 글로벌 사업 확대로 성장을 본격화하는 한편 원가절감 및 수익성 중심의 영업활동 등을 강도높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투미와 떠나는 여정'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가방 브랜드 투미(TUMI)의 2015 가을/겨울 컬렉션 프리젠테이션에서 모델들이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애경 '2080 나인모션 화이트 칫솔' 출시

생활뷰티기업 애경(대표 고광현)의 토털 오럴케어 브랜드 2080이 치아 미백케어에 효과적인 '나인모션(9 motion) 화이트' 칫솔을 4일 출시했다.

2080 나인모션 화이트 칫솔은 일반 칫솔과는 달리 칫솔모와 화이트닝 러버를 치아 표면에 맞춘 과학적 설계를 통해 미백케어의 기능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칫솔 중앙에 배열된 6개의 화이트닝 러버가 양치시 치아 표면과의 마찰력을 증대시켜 표면에 남아있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준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김수정 기자

클라우드, 휴가지서 '가든파티' 연다

롯데주류(대표 이재혁)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클라우드'와 함께하는 다양한 여름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4일 밝혔다.

해운대에서는 5~9일까지 '클라우드 가든파티'가 열린다. 클라우드가 프리미엄 맥주임을 강조하기 위해 부산에서 손꼽히는 프리미엄 펍인 '더 베이 101'를 파티 장소로 선정했다.

7일에는 해운대 그랜드 호텔 지하에 위치한 클럽 '어비스'에서 '클라우드 나이트' 파티가 진행된다.

22일과 23일에는 '광안리 차없는 거리'에서 '클라우드'와 함께하는 '광안리 워터건 축제'를 마련했다. /김수정 기자

패스트푸드 업계 "A급 배우로 신뢰도 높여라"

롯데리아·버거킹·KFC 등
광고모델로 A급 배우 기용
정크푸드 이미지 쇄신 전략

사진 왼쪽부터 KFC의 광고 모델로 선정된 김혜수, 롯데리아의 차승원, 버거킹 이정재.

롯데리아·버거킹·KFC 등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광고모델로 국내 톱스타들을 앞다퉈 기용하고 있다.

이들을 통해 기존 정크푸드(Junk Food) 이미지를 벗어 던지고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면서도 낮아진 브랜드 영향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KFC는 최근 배우 김혜수를 전속 모델로 선정하고 이달부터 TV광고를 시작했다. 광고는 김혜수의 우아한 이미지를 살리면서도 친숙한 KFC 할아버지가 함께 출연해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KFC 관계자는 "김혜수의 스타일리시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대중에게 사랑을 받는 점들이 KFC의 프리미엄 이미지와 잘 부합한다고 판단해 모델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롯데리아도 최근 배우 차승원을 광고 모델로 발탁했다. 예능에서 '차줌마'라는 애칭을 얻으며 전문 셰프 못지않은 현란한 요리 솜씨를 보여준 차승원은 광고에서 역시 친근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보여준다.

버거킹도 개그맨 유세윤 대신 영화배우 이정재를 모델로 발탁해 브랜드 홍보를 진행 중이다.

패스트푸드 업계들이 고가의 비용을 들여 잇달아 소위 A급 배우를 광고 모델로 기용하는 이유는 기존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국내에서 패스트푸드는 많이 먹으면 뚱뚱해지고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정크푸드라는 인식으로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업체들은 최근 패스트푸드와 캐주얼다이닝의 중간 형태인 '패스트 캐주얼' 레스토랑을 지향하고 있다. 가격대가 패스트푸드와 같이 합리적이지만 제품의 질은 웰빙을 지향하는 것이다.

/정은미 기자

'세니떼 뷰티샵' 부진… 코리아나 골머리

1세대 화장품 업체 코리아나화장품(대표 유학수)이 멀티 브랜드숍 '세니떼 뷰티샵'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신규 유통망 확보 차원에서 지난 2013년 시작한 사업이지만 이렇다 할 히트 상품을 내지 못하면서 매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 1분기 코리아나화장품의 세니떼 뷰티샵의 매출 비중은 13% 정도다. 지난해 본격화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제조업자개발생산(ODM) 23.3% 보다 못 미치는 수준이다.

코리아나는 지난 2013년 하반기 세니떼 뷰티샵을 선보였다. 그동안 단일 브랜드 매장 위주로 운영돼 왔던 화장품 브랜드숍과 달리 코리아나는 '멀티숍'을 지향한다는 점을 부각하며 가맹사업을 했다. 또 별도의 가맹비가 없는 '선 지원 후 매출'이라는 시스템을 적용, 가맹점주들과 상생하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현재의 성적은 초라하다. 코리아나 판매경로 별 매출 비중을 보면 지난해 상반기 세니떼 뷰티숍은 16.2%로 전년동기(12.2%)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10% 대에서 고전하고 있다 /김수정 기자

2019년 뇌과학자 4000명 한국行

세계뇌신경과학학술대회 관광공사, 대구 유치 성공

2015 IBRO 브라질대회에서 유치제안 PT 발표 모습. /한국관광공사 제공

오는 2019년 7월에 '제10차 세계 뇌신경과학학술대회(10th IBRO World Congress of Neuroscience)'가 한국에서 열린다.

한국관광공사는 한국뇌연구원, 한국뇌신경과학회, 대구광역시, 대구컨벤션관광뷰로로 구성된 한국 유치단과 함께 2019년 제10차 학술대회를 대구 유치에 성공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2019년 대회 유치는 1995년 일본에서 한 차례 열린 이래 24년만에 아시아에서 열린다. 그리고 뇌 연구와 국제회의 개최지로서의 열세를 뒤집고 개최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작년 9월 한국을 비롯, 중국, 스페인, 프랑스, 터키, 아일랜드 등 무려 10개 국가가 유치를 희망했을 때 한국은 뇌 연구 분야는 물론, 개최지인 대구 또한 국제회의나 관광 목적지로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편에 속했다.

관광공사는 한국뇌연구원, 한국뇌신경과학회, 대구광역시, 대구컨벤션관광뷰로 등 유관 기관들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 중앙과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토대로 치밀한 유치 전략을 펼쳤다.

또한 공사의 해외지사, 재외공관, KOTRA 해외무역관 등 해외 네트워크를 적극 동원한 전방위적 유치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최종 후보지가 3곳(그라나다, 상하이, 대구)으로 좁혀진 후에는 국가별 투표권자들을 분석, 한 명 한 명 개별 설득하는 등 치밀하고도 세심한 득표활동에도 주력했다.

현장 투표가 진행된 지난 7월 7일 2015 IBRO 브라질대회에서 한국은 유치홍보관을 운영하며 한국과 대구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또한 한국의 매끄러운 유치제안 발표가 큰 호응을 얻으며 지난 28일 마감한 온라인투표에서 한국의 개최를 최종 확정했다.

/최치선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333' 안전수칙 지키면 질식재해 걱정 없어요

안보공단, 질식사고 예방 앞장
업체-근로자간 위험정보 공유 밀폐공간 조사·출입금지 표시 작업시 산소농도 측정 등 제시

최근 6개월간 산업현장에 질식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사망률이 높은 재해로, 최근 5년간 174명의 재해자 중 절반인 87명이 사망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3-3-3 안전수칙'을 제시하고,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3-3-3 안전수칙'은 첫째, 원청, 협력업체, 작업근로자 등 3자간 유해·위험정보를 상호 공유한다. 둘째, 사업장내 밀폐공간 조사·확인, 해당 공간에 출입금지 표시, 충분한 안전조치가 확인된 경우에만 밀폐공간 작업을 허가토록 하는 3대 사전예방조치를 취한다. 셋째, 밀폐공간 작업시 산소농도 등 측정, 환기,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전국 안보공단 지역본부와 지사를 통해 밀폐공간 작업시 필요한 산소농도 측정기, 공기호흡기, 이동식 환기팬 등을 무상으로 대여한다.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산소농도측정기 등 밀폐공간작업시 필요한 안전장비류 구입시 사업장당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질식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국의 2500여개 사업장을 선정해 기술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한 밀폐공간 공사업체 근로자과 정화조 등 인허가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밀폐공간은 질식위험장소임에도 작업 전 안전점검이 잘 지켜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전에 질식 위험정보를 파악하여 공유하고, 예방관리 및 안전수칙 준수 등을 통해 질식재해예방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현명 기자 hmbok@

녹십자지놈 '응급상황 예측 의결 지원시스템' 주관기관 선정

4년간 20억원 정부 지원

녹십자 유전체분석 부문 자회사인 녹십자지놈(대표 박복수)이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의 '응급상황 사전 예측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개발'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기(Next-generation sequencing) 기반의 진단시약과 통합 분석 솔루션 개발을 통해 국내 최초의 유전체 정보를 이용한 응급상황 사전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유전체 맞춤 의료실현을 달성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세계 시장에의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과제는 ㈜녹십자지놈이 주관으로 녹십자엠에스, 울산대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녹십자지놈은 2015년 8월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향후 4년간 정부출연금 약 20억원을 지원받아, 응급상황을 초래하는 유전질환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진단시약 허가와 분석솔루션 개발을 완료해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임상검사실 확산과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응급환자의 진단시간 단축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임상의사의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치선 기자

어린이 위한 '멤버십 쉐린 클럽' 운영

쉐라톤 인천 호텔
31일까지 100명 한정 모집 호텔 레스토랑 반값 혜택

쉐라톤 인천 호텔은 개관 6주년을 맞아 어린이 고객들을 위한 '멤버십 쉐린 클럽 회원'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쉐린 클럽에 가입하는 회원에게는 호텔 내 레스토랑에서 상시 어린이 메뉴가 50% 할인된다. 또 쉐라톤 홈메이드 생일 케이크, 베네 어린이 메뉴가 각각 1회 증정되며 베네 피자 쿠킹 클래스 1회 무료 참여가 주어진다.

이 밖에 쉐라톤 인천 호텔 베네 레스토랑에서 어린이 파티나 가족 모임을 할 때 연 1회 15% 할인된다.

쉐라톤 인천 호텔 어린이 멤버십 쉐린 클럽은 31일까지 회원을 100명 한정으로 모집하며 유효기간은 발급 후 1년이다. 멤버십 카드 연회비는 7만원(세금·봉사료 포함)이다.

자세한 내용과 문의는 032-835-1716/1717 또는 www.sheratonincheon.com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일요일 묵으면 월요일 숙박은 '공짜'

스탠포드 호텔
선데이 투 먼데이 패키지 내달 30일까지 운영키로

상암동 DMC에 위치한 스탠포드호텔은 바쁜 비즈니스 고객을 위해 일요일과 월요일에만 이용이 가능한 '선데이투먼데이(Sunday To Monday) 패키지'를 9월 30일까지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이 패키지는 일요일 1박만 이용해도 월요일에 추가 1박을 무료로 숙박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패키지 A와 B 두 가지로 운영된다. A는 안락하고 편안한 객실 1박과 함께 조식뷔페 2인, 맨하탄 바 생과일 주스 2잔의 혜택이 제공된다. B는 객실 1박과 디너뷔페 2인, 맨하탄 바 생과일 주스 2잔 또는 생맥주 2잔을 마실 수 있다.

가격은 각각 15만원, 22만6000원(세금 별도)이다.

스탠포드호텔관계자는 "이번 패키지는 평소에 바쁜 비즈니스맨들을 위해 호텔 객실에서의 도심 속 편안함과 여유로움을 함께 만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예약 02-6016-0001

/정은미 기자

잇츠스킨, 獨 '레드닷' 2년 연속 수상

그래픽 디자인 한 몫

잇츠스킨(대표 임병철)이 세계적인 디자인 공모전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2년 연속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2015년 수상 제품은 '파워10 포뮬라 마스크 시트'와 '페이셜 솔루션 미스트'이다.

올해 연속수상으로 패키지의 우수성과 브랜드의 지속적인 역량을 알렸다. 특히 잇츠스킨은 올해 상반기 '몽드셀렉션'에서도 2년 연속 최고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 같은 성과에는 시각적인 그래픽 디자인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실제 이번에 수상한 '파워10 포뮬라 마스크 시트'(사진)는 첫번째 단계의 이펙터 부분을 잇츠스킨 파워10 포뮬라 제품의 용기 모양과 종류별 대표 컬러로 표현했다. 두번째 단계의 마스크 부분은 10가지의 파워10 포뮬라 중에 해당되는 제품의 이름과 각 제품의 효능을 보기 쉽게 다이아그램 형식으로 디자인했다.

'페이셜 솔루션 미스트'는 소비자가 직접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한 용기로 제작됐다.

잇츠스킨 측은 "피부고민의 솔루션이 되는 제품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라인으로 선보이고 있는 브랜드 콘셉트와 제품의 성분과 효능, 타겟을 그래픽으로 시각화했다"고 설명했다.

/김수정 기자 ksj0215@

star bag

불의의 사고로…

밴드 브로큰 발렌타인의 보컬 **반**(본명 김경민·33)이 3일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 브로큰 발렌타인은 3일 밤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3년 동안 우리 곁을 함께 했던 보컬 반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났다"고 전했다.

드라마로 배우 데뷔

그룹 위너 멤버 **김진우**가 배우로 데뷔한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4일 "김진우가 한중 합작 드라마 '마법의 핸드폰'에 주연으로 캐스팅됐다"고 밝혔다. 작품은 올 가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내일 신곡 발표

가수 **김그림**이 오는 6일 신곡 '연애의 이유' 발표를 앞두고 근황 사진을 공개했다. 김그림은 4일 SNS를 통해 "무더운 여름 외롭게 보내는 분들에게 들려주고픈 노래"라고 신곡을 소개했다.

4년 만에 완전체 컴백

남성보컬 그룹 SG워너비(김용준·이석훈·김진호)가 오는 19일 자정 미니앨범 '더 보이스(THE VOICE)'를 발표하고 완전체로 컴백한다. 4년 만에 발표되는 새 앨범이다. 오는 10월에는 전국투어도 한다.

배구 선수·코치로 만남

배우 **송재림**과 **황승언**이 웹드라마 '두근두근 스파이크'에 캐스팅됐다. 배구부 선수와 코치로 연상연하 커플 로맨스 연기를 펼친다. 드라마는 고등학교 배구부원의 캐스팅을 마무리하는대로 촬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REBOOT'로 돌아온 원더걸스

데뷔 8년차인 걸그룹 원더걸스(예은·유빈·선미·혜림)가 밴드 콘셉트를 내세운 정규 3집 '리부트(REBOOT)'로 3년여 만에 컴백했다. 80년대 레트로 음악을 담은 앨범이다. 레트로 댄스부터 발라드, 올드힙합 장르까지 담았다. 타이틀곡 '아이 필 유(I Feel You)'는 앨범 프로듀싱을 맡은 박진영의 자작곡이다. 신디사이저와 싱코페이션의 화려한 리듬을 결합시킨 프리스타일(freestyle) 장르의 노래다.

밴드 콘셉트, 1회성 아닌 '새로운 시작'

미국 진출은 소중한 추억… 후회 없어
밴드 연습 힘들어 연습실 나가기도 해
우리 색깔로 해석한 복고풍 감성 '매력'

원더걸스의 행보는 팀 이름처럼 경이로웠다. '텔 미' '노바디' '쏘 핫' 등 주옥 같은 히트곡으로 정점을 찍었다. 팝의 본고장 미국으로도 활동 무대를 넓혔다. 2009년 '노바디'를 영어로 개사해 미국에서 싱글로 발매했다. 한국 가수로는 30년만에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76위에 오르며 성공하는 듯 했다.

그러나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제대로 빛나지 못한 채 다시 돌아와야 했다. 참담한 실패였다. 많은 상처를 받은 것 같았다. 하지만 원더걸스 멤버들은 그때의 경험을 "추억"이라고 말했다.

"미국 진출에 후회는 없어요. 정말 소중했던 시간들이었으니까요. 한국에서는 여유가 없었어요. 아침에 눈뜨면 스케줄대로 움직이고 잠도 제대로 못 잤죠. 오히려 미국에 있었을 때 기억에 남는 추억들이 많아요. 버스 안에서 깻잎이랑 김이랑 놓고 라면도 끓여먹고 투어 다니면서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했고요. 우리가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은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죠." (예은)

성장통을 겪은 원더걸스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2013년 결혼한 리더 선예와 소속사를 옮겨 배우로 활동하던 소희가 팀에서 탈퇴한 것이다. 대신 선미가 4년 만에 다시 합류해 지금과 같은 4인 체제가 완성됐다. 정규 3집을 내기까지 3년 2개월의 시간 동안 준비한 것은 다름 아닌 밴드 콘셉트였다. 멤버들은 각자 라이브 공연을 할 수 있을만큼의 악기 연주 실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

"매 순간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악기 실력이 늘어도 어느 순간이 되면 정체되는 시기가 오거든요. 많이 힘들었어요. 합주는 처음이라 호흡 맞추는 것도 어려웠고요. 다들 한 번씩은 연습실을 박차고 나가서 울기도 했어요(웃음)." (선미)

원더걸스가 밴드를 한다고 했을 때 팬은 기대보다 우려를 나타냈다.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버려야 했기 때문이다. 원더걸스도 밴드 콘셉트에 두려움이 앞섰다.

"우리가 주목 받았던 건 키치한 음악과 안무였죠. 그 포맷을 버리고 밴드를 준비했 때 두려움이 컸어요. 그런데 앨범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우리의 이야기와 감성을 풀어내는 과정이 만족스러웠어요. 두려움도 사라졌죠. 개개인이 성장한 느낌이 들어요. 이번 앨범은 우리에게 의미가 깊어요. 타이틀 곡을 제외하고는 다 작업에 참여했으니까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1회성 콘셉트가 아니라 앞으로도 밴드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선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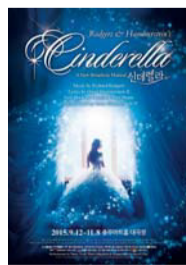
원더걸스의 음악과 퍼포먼스는 '복고'와 떼려야 뗄 수 없다. 선미는 "그때의 감성을 모르는 우리들이 우리 색깔로 해석해 표현하는 것이 매력"이라고 설명했다.

/하희철 기자 hhc@metroseoul.co.kr

뮤지컬 '신데렐라' 내달 12일 초연

2013년 브로드웨이서 첫 선… 토니상 수상작
안시하·서현진·윤하·백아연 '신데렐라' 변신

뮤지컬 '신데렐라'가 다음달 12일부터 11월 8일까지 충무아트홀 대극장 무대에 오른다.

이번에 국내 초연되는 뮤지컬 '신데렐라'는 2013년 브로드웨이에서 첫 선을 보인 뒤 토니상, 드라마 데스크상, 외부 비평가협회상 등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사운드 오브 뮤직' '왕과 나' '남태평양' 등을 쓴 뮤지컬 작곡가-작가 파트너 로저스와 해머스타인이 1957년 TV 방송용 뮤지컬로 만든 작품을 더글라스 카터 빈이 각색했다.

출연 배우진도 화려하다. 신데렐라 역은 안시하, 서현진, 윤하, 백아연이, 신데렐라와 사랑에 빠지는 크리스토퍼 왕자 역은 엄기준, 비스트의 양요섭, B1A4의 산들, 빅스의 켄이 맡는다.

국내 뮤지컬 제작을 맡은 엠뮤지컬아트 김선미 대표는 "모두가 알고 있는 기존 동화 속 신데렐라와는 달리 신선한 캐릭터 설정과 재치 있는 스토리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며 "브로드웨이에서 인정받은 작품성과 감동을 토대로 국내에서도 의상과 무대에 심혈을 기울여 화려하고 신기한 마법 같은 무대로 관객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뮤지컬 '신데렐라'는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주요 예매처에서 1차 티켓을 오픈한다. (문의: 02-764-7857~9)

/장병호 기자 solanin@

국경·인종 아우르는 '웃음사냥'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28일 개막식, 4일간 열려 해외 12개국 25개팀 초청

4일 청담동 일지아트홀에서 열린 제3회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기자회견에 참석한 성하묵 이사, 김대희 이사, 전유성 명예조직위원장, 김준호 집행위원장, 최대웅 부집행위원장, 조광식 부집행위원장(왼쪽부터)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와이트리 제공

제3회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이하 BICF)이 2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31일까지 4일간 열린다.

2013년 시작된 BICF는 만국 공통어인 '웃음'으로 국경과 인종을 초월하는 아시아 최초의 코미디 페스티벌이다.

올해는 미국·영국·호주·캐나다·독일·중국·일본 등 전 세계 12개국의 25개 코미디팀을 초청했다. TV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인다.

슈퍼갈라쇼에서는 지난해와 달리 특정 방송사 또는 프로그램에 편중되지 않고 여러 방송사의 국내 코미디언들이 합동 무대를 선보인다. 코미디협회장인 엄용수는 원로 코미디언들과 추억의 코미디쇼를 기획했다. KBS '개그콘서트'의 미남 개그맨 4인방 김성원·김기리·서태훈·류근지는 '이리오쇼'를, 2회 BICF에서 19금 코미디 '뉴욕쇼'로 호평을 받은 변기수는 '목욕쇼'로 한층 수위가 높아진 공연을 선보인다.

집행위원장 개그맨 김준호는 "BICF가 코미디계에 비전을 제시할 거라고 생각한다. 공연 활성화를 주도해 단독 공연들이 많이 생겨났고 '1분 콘텐츠'를 만들어서 유통망을 제공해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게 됐다. BICF가 무역시장이 돼 한국 코미디 콘텐츠를 해외에도 수출하는 게 목표"라고 페스티벌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에딘버러 코미디 페스티벌을 모니터할 예정이다. 아시아 최초라는 점에서 유리한 입장이지만 콘텐츠만 좋다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여행상품 개발이나 부산시의 행정적 문제를 면밀히 검토중이다. 앞으로 부산국제영화제 못지 않은 국제적인 축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하희철 기자 hhc@metroseoul.co.kr

권상우·성동일, 추리콤비 탄생

베일 벗은 '탐정:더 비기닝' 9월 추석시즌 개봉 예정

권상우, 성동일 주연의 영화 '탐정: 더 비기닝'이 티저 포스터와 예고편을 공개했다.

'탐정: 더 비기닝'은 한국의 셜록을 꿈꾸는 추리광 강대만(권상우)과 광역수사대의 전설과도 같은 형사 노형사(성동일)의 비공개 합동 추리 작전을 그린 영화다.

이번에 공개된 포스터는 새로운 명탐정 콤비의 탄생을 예고해 눈길을 끈다. 권상우와 성동일의 콤비 플레이를 확인할 수 있다.

티저 예고편은 형사보다 더 형사 같은 강대만과 오랜 경력과 내공으로 다져진 노형사의 캐릭터를 담았다. 두 배우의 티격태격 호흡이 웃음을 자아낸다. 또한 두 콤비가 선보일 영화 속 비공식 합동 추리수사에 대한 궁금증도 갖게 한다.

영화는 2006년 제8회 막동이 시나리오 공모작 당선작을 영화화했다. 권상우의 코믹 귀환, 그리고 성동일의 카리스마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탐정: 더 비기닝'은 오는 9월 추석 시즌에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 기자 solanin@

평범함을 특별하게 만든 로맨스

film review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자고 일어나면 모습이 바뀌는 남자 공감가는 대사 담은 감성적인 멜로

■뷰티 인사이드

매일 자고 일어나면 모습이 바뀌는 남자가 있다. 나이도 성별도 외모도 매번 달라지는 남자에게 평범한 일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남자는 낯설었던 자신의 변화를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나 익숙했던 특별함은 한 여자를 만나면서 불편함으로 바뀐다. 그녀와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다.

'뷰티 인사이드'는 제작 단계부터 궁금증을 자아냈던 작품이다. 잠을 자면 모습이 바뀌는 남자와 그가 사랑한 여자의 로맨스라는 독특한 설정 때문이었다. 김대명·이범수·박서준·김상호·천우희·우에노 주리·이진욱·서강준·김희원·이동욱·고아성·김주혁·유연석 등이 특별한 남자 우진을 연기했다. 한효주가 우진의 마음을 사로잡는 여인 이수 역으로 이 배우들과 호흡을 맞췄다.

영화의 원작은 2012년 인텔과 도시바가 함께 제작한 동명의 소셜 필름이다. 컴퓨터의 메인보드를 매일 모습이 바뀌는 남자의 모습에 빗대 만든 광고 영화다. CF 감독 출신인 백 감독은 원작 속 설정을 빌려와 색다른 감성의 멜로로 영화를 완성시켰다.

'뷰티 인사이드'의 가장 큰 매력은 특별해 보이는 로맨스를 평범하면서도 공감하게 그려내고 있다는 점이다. 우진과 이수의 만남과 사랑, 그리고 이별의 이야기는 사실 보편적인 로맨스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서로의 비슷한 모습에 끌려 사랑에 빠지지만, 어느 순간 서로 다른 점이 더 눈에 띄게 되면서 이별을 맞이하게 된다는 점에서 익숙한 러브 스토리다.

하지만 영화가 지닌 특별한 설정이 익숙한 이야기를 보다 낭만적으로 그려낸다. 한 사람을 자연스럽게 소화해낸 21명의 배우들, 그리고 이들과 탄탄한 호흡을 보여주는 한효주의 연기가 영화를 더욱 흡입력 있게 만든다. "사랑이 모든 걸 해결해줄 것 같지만 사랑이 모든 걸 망치기도 한다"와 같은 대사도 곳곳에서

등장한다. 감성적인 멜로영화를 기다려온 관객이라면 그 기다림을 채우기에 충분하다.

아쉬움도 없지는 않다. 독특하고 기발한 설정을 두 남녀의 로맨스를 강화하기 위한 장치로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그러나 로맨틱한 데이트 장면에서는 잘 생긴 미남 배우들만 등장하는 것도 눈에 밟힌다. '외모에 집착하는 현대인의 사랑'이라는 다소 진지한 이야기를 끌어내기에 충분한 설정이지만 영화는 대중적인 길을 택했다. 12세 이상 관람가. 8월 20일 개봉.

TV 하이라이트

추억의 소울 푸드 '카레'의 비밀

◆ tvN '수요미식회'

오후 9시40분

신비로운 향으로 입맛을 홀리는 카레를 주제로 맛 토론회를 연다. 카라의 박규리와 박준우, 인도인 럭키가 특별 게스트로 스튜디오를 찾는다. 박규리는 급식 카레를 먹고 학교도 못갈 정도로 체한 사연을, 신동엽은 카레 데이트에 얽힌 아름다운 사연을 밝힌다. 인도 식당의 시그니쳐 메뉴인 난을 가정집에서 먹을 수 있는 비법, 그리고 카레 가루의 탄생지에 대한 비밀도 공개된다.

◆ SBS '용팔이'

오후 10시

용한 '돌팔이' 외과의사인 태현은 조직폭력배들에게 불법 왕진을 하면서 몰래 돈을 번다. 일이 틀어져 경찰에 쫓기던 중 불의의 사고로 잠들어있는 상속녀 여진을 만나게 된다.

◆ tvN '내 친구와 식샤를 합시다'

오후 11시

'식샤를 합시다 시즌2'의 주인공 윤두준과 서현진이 절친을 데리고 본격 유럽 '먹방' 여행을 떠난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첫 번째 여행지인 파리에서 이들 일행은 뜬금 없는 미션 봉투를 받는다.

◆ MBC '라디오스타'

오후 11시15분

엄마라는 이름을 얻게 된 '주부요정'특집이다. 슈·황혜영·이지현·자두가 출연한다. 삼남매의 엄마 슈는 출산하자마자 클럽으로 달려간 엉뚱한 사연을 공개한다.

/정리=하희철기자 hhc@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일 (수)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1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10 생방송 오늘 저녁	00 생방송 투데이	00 톡! 톡! 보니 하니 1 (2898회) 05 코코몽 3 25 꼬마 철학자 휴고 45 동생이랑 나랑 (23회)	00 하늘 놀이터 (재) 25 Real Fun World (재) 30 출동! 슈퍼윙스(영어·한국어) (재) 50 Real Fun World2 (재) 55 시계마을 티키톡!(영어·한국어) (재)
19시	00 KBS 뉴스 7 30 70년의 세월 70가지 이야기	50 오늘부터 사랑해 (85회)	15 위대한 조강지처 (38회) 55 MBC 뉴스데스크	20 돌아온 황금복 (42회)	00 곤 30 EBS 뉴스 50 사선에서	25 내 친구 아서(영어) (재) 35 Real Fun World3 (재) 40 내 친구 아서(한국어) (재) 50 두키 탐험대(영어)
20시	25 가족을 지켜라 (62회)	30 생생정보 (3회) 55 비타민	55 딱 너 같은 딸 (58회)	00 SBS 8 뉴스 55 영재발굴단	40 다큐 오늘 50 세계 테마 기행	00 Real Fun World4 (재) 10 두키 탐험대(한국어) (재) 20 스쿨랜드 30 공부의 왕도 (재)
21시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30 한국기행 50 EBS 다큐 프라임	00 다큐 오늘 10 EBS 스타 강사 특강
22시	00 한국인의 건강은 어떻게 변해 왔나 55 국민대합창 우리가	00 어셈블리 (7회)	00 밤을 걷는 선비 (9회)	00 용팔이 (1회)	45 극한 직업	00 영화로 배우는 영어 <킹콩>
23시	00 KBS 뉴스라인 40 문화빅뱅 더 콘서트	10 추적 60분	15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15 한밤의 TV연예	3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24시	40 동행 (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2차대전 종전 70주년 기획 다큐 <세계대전>	35 MBC 뉴스 24 55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35 나이트라인	05 지식채널e (재) 10 한국영화특선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재)	30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 (재)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CGV	스포츠
18시	20 냉장고를 부탁해 (38회) (재)	20 집밥 백선생 (12회) (재)	10 오늘 뭐 먹지? (14·20회)			◆ 프로야구 (18:30) 두산 vs 롯데 (SPOTV+) 한화 vs SK (MBC SPORTS+) 삼성 vs KT (SKY SPORTS) KIA vs 넥센 (SBS SPORTS) NC vs LG (KBS N SPORTS)
19시	00 2015 동아시안컵[남자]	40 고성국의 빨간 의자 (59회)	30 현장토크쇼 TAXI (387회)	00 나는 자연인이다 (24회)	00 디스 민즈 워	
20시		40 강용석의 고소한 19 (144회)		00 와일드 순간포착(2) (14회) 30 이것은 실화다 (12회)		
21시	30 JTBC 뉴스룸	40 수요미식회 (28회)	00 주문을 걸어 (2회)		00 무비스토커 (5회)	
22시	30 연금복권 520 (214회) 50 냉장고를 부탁해 최고의 빅 매치 (6회)		00 MAPS (5회)	00 항공사고 수사대 : 에어 크래쉬 (10회)	30 무비스토커:금주의 영화 (1회)	
23시		00 내친구와 식샤를 합시다 (1회)	20 오늘 뭐 먹지? (24·46회)	00 <2차 세계 대전:대서양 전투> 히틀러의 유럽 침략		
24시	20 비정상회담 스페셜 (57회)	20 강용석의 고소한 19 (144회) (재)	20 2015 테이스티로드 (5회)	00 위키드 튜나 4 (5회)		

슈틸리케호, 일본과 운명의 '라이벌전'

최근 3경기 패배 설욕할 기회
중국전 승리 이어 2연승 노려

2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동아시안컵 축구대회에서 중국에 승리한 한국선수들이 경기 후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과의 동아시안컵 개막전에서 완벽한 승리를 챙긴 슈틸리케호가 이번에는 '영원한 맞수' 일본과 대결한다.

울리 슈틸리케(61·독일)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 대표팀은 5일(한국시간) 오후 7시20분 중국 우한 스포츠센터에서 일본과 동아시안컵 2차전을 치른다.

한일전은 2013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동아시안컵 이후 2년 만이다. 양팀 간 역대 전적에서는 40승22무 14패로 한국이 앞서 있다.

하지만 최근 3경기에서는 모두 일본에 패했다. 2년 전 동아시안컵에서는 1-2로 졌다. 2011년 일본 삿포로에서 열린 친선경기에서는 0-3 충격적으로 패배했다. 같은 해 1월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준결승에서는 2-2 무승부를 기록하고서 승부차기에서 0-3으로 패했다.

이번 경기는 그동안의 연패를 깨끗하게 설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슈틸리케호는 앞서 1차전에서 홈팀 중국을 1-0으로 꺾어 상승세를 타고 있다. 반면 일본은 북한에 1-2로 역전패하면서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한국과 일본 대표팀 모두 유럽파가 빠졌다는 점에서 상황은 같다. 대신 K리그와 중국·일본 리그 선수들로 구성한 한국과 달리 선수층이 두꺼운 일본은 자국 리그 선수들로만 대표팀을 꾸렸다. 엔트리는 양국 모두 어린 선수들로 채웠다. 이번 맞대결은 양국의 미래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한국은 중국전에서 펄펄난 이종호(23·전남)와 김승대(24·포항), 이재성(23·전북) 등 20대 초반 선수들과 최고의 하드웨어인 원톱 김신욱(27·울산) 등이 출격을 대기하고 있다. J리그에서 뛰며 '지일파'로 분류되는 김민우(25·사간도스), 정우영(26·빗셀고베), 이용재(24·V-바렌 나가사키) 등이 든든히 뒤를 받치고 있다.

슈틸리케호는 중국전 선발 선수들 대신 김신욱 등 새로운 선수를 대거 투입해 라인업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간판 공격수 우사미 타카시와 무토 유키 등을 앞세워 한국 골문을 노릴 것으로 분석된다.

1차전에서 신예들의 활약 속에 중국을 2-0으로 꺾은 한국은 내친김에 2연승을 노린다. 일본까지 잡는다면 7년 만의 동아시안컵 우승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다.

사기가 하늘을 찌르는 한국과 달리 북한과의 개막전에서 예상 밖 역전패를 당한 일본의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다. 9경기(6승2무1패) 만에 당한 올해 첫 A매치 패배다. 바히드 할리호지치(63) 감독은 북한전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 취재진의 날선 질문에 진땀을 흘려야 했다.

일본 대표팀에게 한국전은 위기이자 기회다. 한국을 꺾는다면 북한전 패배가 잊혀지겠지만 반대의 경우 할리호지치 감독의 앞날은 더욱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하희철 기자 hhc@metroseoul.co.kr

추신수, 시즌 14호 홈런…6경기 연속 안타

4일(한국시간) 텍사스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서 추신수가 2런 홈런을 친 뒤 베이스를 돌고 있다. /AP 연합뉴스

강정호 '7월의 신인상'
피츠버그 우천 취소

미국 메이저리그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가 승기를 잡는 시즌 14번째 홈런을 터뜨렸다.

추신수는 4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 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벌어진 미국프로야구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서 7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해 4-2로 앞선 1회 1사 1루의 첫 타석에서 우측 펜스를 시원하게 넘어가는 2점짜리 홈런(비거리 117m)을 쏘아 올렸다. 3타수 1안타를 기록해 시즌 타율은 0.239(351타수 84안타)를 유지했다. 또한 텍사스 이적 첫 해이던 지난해 남긴 13개를 1개 경신했다. 6경기 연속 안타 행진도 이었고 타점 2개를 보태 시즌 타점 50개째를 채웠다.

추신수의 홈런으로 6-2로 점수를 벌린 텍사스는 3회 5점을 더 보탠 끝에 12-9로 승리했다.

강정호(28·피츠버그파이리츠)는 삼진만 두 개 기록한 경기가 노게임으로 선언되는 행운을 맞았다.

강정호는 또한 메이저리그 입성 4개월 만에 내셔널리그 7월의 신인으로 뽑혔다. 한국 선수가 '이달의 신인'으로 뽑히기는 최희섭(현재 KIA 타이거즈) 이후 역대 두 번째다. 최희섭은 내셔널리그 시카고 컵스 소속이던 2003년 4월 타율 0.241에 5홈런 14타점을 기록해 이달의 신인상을 받았다.

/하희철 기자

정현, 시티오픈 단식 32강 진출

US오픈 우승 칠리지와 맞대결 앞둬

정현(77위·사진·삼성증권 후원)이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시티오픈(총 상금 150만8815 달러) 단식 32강에 진출했다.

정현은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대회 첫날 단식 1회전에서 두디 셀라(125위·이스라엘)을 2-0(6-2 6-2)으로 꺾었다.

서브 에이스 6개를 꽂은 정현은 자신의 서브 게임을 하나도 내주지 않으면서 불과 58분 만에 승리를 확정지었다. 정현이 이날 물리친 셀라는 2009년 세계 랭킹 29위까지 올랐던 30세의 베테랑 선수다.

정현의 다음 상대는 지난해 US오픈 우승자 마린 칠리치(8위·크로아티아)다. 지금까지 상대한 선수 가운데 세계 랭킹이 가장 높은 선수다.

키 198㎝의 장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한 서브가 칠리치의 주무기다. 그러나 올해 초 어깨부상으로 호주오픈에 출전하지 못하는 등 이번 시즌에서 우승은 아직 하지 못했다.

/장병호 기자

박인비, 다음 무대는 제주도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고진영과 함께 출격

'커리어 그랜드 슬램'의 위업을 달성한 박인비(27·KB금융그룹)가 제주도로 기세를 이어간다.

박인비는 오는 7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도 제주시 오라컨트리클럽(파72·6519야드)에서 열리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총 상금 5억원)에 초청 선수로 출전한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박인비가 국내 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KB금융 스타챔피언십 이후 처음이다. 당시 박인비는 김효주(20·롯데)에 1타 차로 정상을 내주고 2위를 차지했다.

박인비는 지난해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에서 공동 4위에 오르는 등 KLPGA 투어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 이번 경기에서 활약이 더욱 주목되는 이유가 있다. 지난 3일 LPGA 메이저대회인 브리티시여자오픈에서 정상을 밟으며 여자 선수로서는 전 세계에서 7번째로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3일(한국시간) 브리티시여자오픈에서 우승한 박인비가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해 꽃다발을 들고 손을 흔들고 있다. 박인비는 오는 7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에 출전해 '커리어 그랜드 슬램'의 기세를 이어간다. /연합뉴스

고진영(20·넵스)도 제주삼다수 마스터스에 출격한다. 고진영은 이번 브리티시여자오픈에서 3라운드까지 선두를 달리다가 마지막 라운드에서 박인비에 역전당해 2위에 머물렀다. 고진영이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KLPGA 투어 시즌 4승째를 올리게 된다.

/장병호 기자 solanin@

Subscribers of KT data plans will experience a rate increase

"통신비 절감" KT데이터요금제 가입자당 통신료 되레 증가

The Data-centric charge is being imposed by KT allegedly in order to deduct the household communication service fee, but will in practice have the adverse effect of increasing the average data plan price per subscriber. Initially, this ploy was predicted by several civic organizations to some skepticism, but their assertions proved correct.

KT, a major wire service in Korea who was one of the first to invoke a data-centric charge that provides for unlimited domestic voice communication, originally predicted that short term profits would experience a decline. However, KT leveraged this risk with the hope the rise in average data plan price per subscriber would result in second quarter business profits.

참여연대 회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통신비 인하 촉구와 미래창조과학부의 통신정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In this new age of wireless communication, the communication charge per subscriber is proving to be wire service's profitability index.

Consumer survey results reveal consumer expectations of future household communication service fees to be innovatively saved, expectations which will not be met if KT's new communication charge represents the new norm in wired services.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KT가 가계통신비 절감을 이유로 내세운 데이터중심요금제가 가입자당 평균매출을 되레 늘이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때문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당초 이 요금제가 출시될때부터 통신비를 늘리려는 '꼼수'라고 지적한 것이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했다.

음성통화를 무제한 제공하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국내 최초로 출시한 KT는 당초 이요금제로 단기 수익성이 악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이와달리 가입자들의 평균매출이 늘어나며 2분기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다.

가입자당 통신요금은 통신사의 수익성 지표다.

가계통신비의 '혁신적인 절감'을 예상했지만 소비자들은 그 효과를 느끼지 못한다는 설문결과도 나왔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5					8			
8			5				6	4
	1						5	
				1			3	6
	6		7	9	3		2	
2	4			8				
	9						4	
7	8				1			5
			2					3

			7		8			1
7			9	2				
5	9	8					2	
	1		5					9
			2		1			
8					9		6	
	4					5	8	2
				4	7			3
1			3		2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스도쿠 정답

5	2	4	1	6	8	3	7	9
8	3	9	5	2	7	1	6	4
6	1	7	9	3	4	8	5	2
9	7	8	4	1	2	5	3	6
1	6	5	7	9	3	4	2	8
2	4	3	6	8	5	9	1	7
3	9	2	8	5	6	7	4	1
7	8	6	3	4	1	2	9	5
4	5	1	2	7	9	6	8	3

4	6	2	7	3	8	9	5	1
7	3	1	9	2	5	8	4	6
5	9	8	6	1	4	3	2	7
6	1	4	5	8	3	2	7	9
9	7	5	2	6	1	4	3	8
8	2	3	4	7	9	1	6	5
3	4	7	1	9	6	5	8	2
2	5	9	8	4	7	6	1	3
1	8	6	3	5	2	7	9	4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내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장담할 운은 아니지만 충실히 준비하면 가능

작은 공주 여자 81년 5월 음력

Q 저는 올해 35세 주부이고 음력 5월이 저의 생월입니다. 생년월일은 비공개로 해주세요.

몇 년 전에 제가 지방에 군무원 시험을 치를 때 선생님께 시험에 합격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여쭈었더니 합격이 된다고 하셨는데 정말 합격이 되어 그동안 잘 지내왔습니다.

그 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보니 남편과 떨어져 살아야 하고 근무지를 옮겨야 할 일이 자주 있어서 이번에 일반 공무원 시험을 쳤는데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다시 도전 하려고 하는데 올 해같이 사주8자에서 운이 닫지를 않아 합격이 되지도 않을 것을 공연히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어 상담의뢰를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A '대한민국은 지금 공무원 시험 중이다'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대학 졸업생 10명중에 4명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보통 경쟁률이 100:1 이나 되고 있으니 공무원의 꿈을 갖기가 힘이 드는 현실입니다.

사주팔자와 운의 흐름을 따지기 전에 귀하가 9개월에서 1년가량 시간이 남은 시점. 지금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는 등 내년 시험 대비를 시작해야 합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무리한 수험계획보다는 본인에게 맞는 맞춤형 수험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우는 것이 좋고 시험을 준비하는 초기에 기본적인 내용을 얼마나 충실하게 잘 준비하느냐 또한 시험 당락을 결정하는 큰 요소가 됩니다.

한번 실패를 경험한 바가 있으니 먼저 본인의 현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다음 이를 토대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학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해 국가직과 지방직, 서울시를 치르면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문제유형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향후 학습 방향을 설정해야할 것입니다.

작은 공주님의 사주 구조를 살펴 볼 때 신 강한 사주로서 수(水)가 수호신이고 필요한 오행이 됩니다. 올해 불합격이 된 이유도 수호신이 극해(剋害)를 당하고 있으며 천간(天干)에서 충살(沖殺:충돌)을 당했으니 합격이 안 된 것입니다. 공무원으로 생활하는 것이 천직이 될 수는 있으나 군무원과 달리 일반직 공무원 시험이므로 만만치가 않겠지요.

힘은 다소 미약하지만 무난합이 70대까지 이어지는 운세인데 지금은 세운과 대운에서 어떤 시험 합격을 마음 놓고 장담 할 정도가 아니지만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법 해결책을 찾기 위해 애를 쓴 노력은 운을 부르는 필수입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8월 5일 (음 6월 21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48년생 유망한 업을 물색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60년생** 대인관계에 신경쓰세요. **72년생** 이성이 귀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84년생** 저녁약속이 있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하세요.

49년생 하루 종일 심기가 편치 않습니다. **61년생** 능력 이상의 것을 바라고 희망하지 마세요. **73년생** 희망을 버리지 않는 마음이 중요할 것입니다. **85년생** 분에 넘치는 행복을 받게 됩니다.

50년생 사기를 당하게 되니 주의하세요. **62년생** 믿었던 친구가 배신하게 됩니다. **74년생** 속 썩이던 이성간에 문제는 해결됩니다. **86년생** 깔끔하지 못한 일처리는 화를 부릅니다.

51년생 오늘 하루는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63년생** 전공을 살리지 못합니다. **75년생** 주위에 적을 너무 많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87년생** 스스로 화를 불러들인 격입니다.

52년생 종교가 있다면 지성을 들여 빌도록 하세요. **64년생** 마음을 비우고 사리사욕을 없애도록 노력하세요. **76년생** 육신의 고단함은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88년생** 몸과 마음을 휴식하세요.

53년생 마음만 급하고 실천은 안일합니다. **65년생** 뜻대로 이루어지기 만무합니다. **77년생** 은인이 원수가 되니 단호히 거절하세요. **89년생** 유하게 흐르지 아니하면 크게 쓰일 것입니다.

54년생 내가 능히 나아가면 길하겠습니다. **66년생** 일이 여의치 않으니 마음에 번민이 많습니다. **78년생** 밖에 나가면 마음이 편할것입니다. **90년생**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55년생 구설수에 오르게 되면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67년생** 새로운 운의 흐름을 맞게 되어 기쁘겠습니다. **79년생** 집에 있는 것이 좋으니 외출을 삼가세요. **90년생** 재물운이 좋습니다.

56년생 크게 바라지 않으면 이룰 수 있습니다. **68년생** 매매가 있다면 길합니다. **80년생**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얻는 상입니다. **92년생**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습니다.

57년생 방황했던 마음을 바로 잡는 운입니다. **69년생** 동쪽에서 귀인이 오고있습니다. **81년생** 좋지 않은 일에 휩싸이게 됩니다. **93년생** 의연하게 대처하면 광명을 찾게 됩니다.

58년생 난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70년생**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세요. **82년생** 지금의 사업에 충실하세요. **94년생** 본인의 양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59년생 사업확장이나 다른것을 구상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71년생** 소송이 있다면 다음 기 회로 미루세요. **83년생** 말조심하세요. **95년생** 여행을 떠나면 문제의 답이 나올 것입니다.

사이비 언론이 어디냐고 독자에게 먼저 물어보라

송병형의 딴생각

재벌 대기업의 대변인인 한국광고주협회의 7월 1일자 사이비 언론 조사 발표는 재벌로 인해 왜곡된 한국 사회의 모순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협회는 철저히 한국 재벌 고유의 잣대로 사이비 언론을 규정했다. 재벌 대기업 오너의 사진을 풍자하는 '불경'을 저지르면 이들에게는 사이비 언론이다. 부정적인 기사의 제목에 오너의 이름이 들어가서도 안 된다. 아니 부정적이든 아니든 경외의 대상인 오너의 이름이 거론되는 자체가 이들에게는 문제다.

광고나 협찬을 유도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기사를 내보내는 언론은 사이비 언론이란다.

기득권을 쥔 대형 언론의 포럼에 수억원을 뜯기는 것보다 오너의 이름과 얼굴이 대중에게 노출되는 일을 막기 위해 푼돈을 뜯기는 게 이들에게는 더 큰 문제라는 이야기다. 왜일까.

이들이 사이비 언론을 고발하며 쏟아낸 말에 답이 있다. "오너도 신문을 보는 데 그걸 그냥 두면 난리 난다. 더군다나 오너 일가와 관련해 핵심적인 내용이면 억을 주고라도 빼야 한다."

만약 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들은 밥줄이 끊기게 된다. 그러니 오너에 불경을 저지르는 언론은 이들에게 악질적인 사이비 언론이 될 수밖에 없다.

전후 일본의 자이바츠(재벌)는 미군정에게 해체 당했지만 일제 식민지 잔재 속에 자라난 한국의 기업 문화는 되레 재벌 문화를 키워왔다.

한때 군사정권이 재벌의 생사여탈권을 쥔 때도 있었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재벌은 사회 저변에 뿌리를 내리며 영향력을 키우기 시작했다. 이들에게 정권이란 잠시 스쳐 부는 바람에 지나지 않게 됐다. 진짜 힘 있는 재벌은 이젠 국세청과 검찰의 칼날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재벌 해체와 같은 이야기는 먼 옛날의 이야기가 됐고 이제는 특사 정도가 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이제 재벌의 오너는 직원들의 신이 돼 가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시간이 갈수록 가정·사회·국가에서 권위주의는 해체됐지만 직장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집에서 부모와 격의 없이 지내다가도 회사에서는 감히 오너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삼성 직원들은 '이재용'이 아닌 'JY'라는 이니셜을 사용한다고 한다. 외부인이 함부로 부르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한다고 한다.

기업문화가 이러니 오너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돈을 써서라도 언론의 비판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소위 홍보맨들이 돈으로 언론을 길들이기 시작하자 언론은 혼탁해지기 시작했다. 언론을 오염시킨 홍보맨들은 이제 스스로 사이비 언론이란 낙인을 만들어 희생양을 고르고 있다.

어느 언론에 보도됐다는 오너와 관련된 사이비 언론의 기준도 실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 쓴 것이다.

혹자는 '삶은 현실이고 현실에서 힘은 정의니 희생양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문제는 간단치 않다.

한국의 오늘은 1987년 민주화의 산물이다. 1987년 체제의 근간은 언론의 자유다. 안기부(국정원의 전신)의 사찰과 언론기본법이라는 악법에 짓눌렸던 한국 사회는 새 헌법에서 언론의 자유를 정치적, 사회적 민주화의 근간으로 삼았다.

재벌이 사이비 언론이란 낙인을 들고 언론을 좌지우지한다면 결론은 역사의 후퇴다.

혹자는 또 '그렇다면 혼탁한 언론 생태계를 방치해야 하느냐'고 말할지 모른다.

답은 간단하다. 사이비 언론이 누구냐고 독자에게 물어보면 된다. 틀림없이 독자는 재벌 오너를 미화하는 용비어천가를 짓고, 신화를 써대는 언론을 사이비라고 부르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社說

별도의 대타협기구는 옥상옥이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는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 여당과 야당이 연일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하반기 노동시장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반면 야당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추진방법론에 있어서도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과 별도의 대타협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른바 노동시장 개혁은 워낙 민감한 문제이고, 많은 국민들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그것을 정권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일도 아니라는 명제에도 공감한다.

그러나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를 두고 별도의 대타협기구가 또 필요한지는 의문스럽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과 함께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설치돼 상설기구가 됐다. 지금처럼 노동개혁 같은 의제가 제기됐을 때 논의하기에는 더 없이 좋은 장치이다.

노사정위원회가 지금까지 한 일이 없다면서 못마땅하게 보는 시각도 있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번 기회에 그간의 게으름을 반성하고 활성화를 도모하면 되는 일이지, 또 다른 기구를 만들어야 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개혁의 필요성 여부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의제에 올려놓고 충분한 토의를 하면 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재벌개혁이나 재벌사업장의 산업재해 등 다른 문제를 함께 논의해 볼 수도 있다.

그래도 불충분하면 국회에서 더 논의하면 된다.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하거나 청문회를 열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요컨대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를 우선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별도의 대타협기구는 옥상옥이다. 합리적 결론을 이끌어내기보다는 과도한 정쟁만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사회현안에 대해 질서 있는 논의의 틀과 전통을 수립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절실한 과제가 아닐까 한다.

웹드라마, 드라마계 '2부리그' 넘어설까

기자 수첩
하 희 철
<문화스포츠부 기자>

웹드라마의 성장세가 무섭다. TV가 아닌 인터넷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드라마라 인지도 면에서는 TV드라마와 비교가 안 된다. 하지만 반대로 접근성에 있어서는 오히려 월등하다. 해외에서도 접속만 하면 손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SM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라인이 공동제작해 지난 4월 선보인 '우리 옆집에 엑소가 산다'는 한 달 동안 무려 5000만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수치만 따져보면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이 드라마를 본 셈이다. 그만큼 웹드라마는 무시할 수 없는, 오히려 드라마 제작사, 방송사, 기획사 등에서 앞다퉈 노려야 할 콘텐츠로 부상하고 있다.

웹드라마는 사실상 드라마계의 '2부 리그' 성격이 짙다. 기회와 검증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방영시간이 짧다. 한 편이 보통 10분 분량이고 길어야 30분이다. 10부작 드라마를 다 봐도 2시간이 넘지 않는다. 제작비 부담이 적다.

또한 연기자와 연출자, 작가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제작비가 편당 억대가 넘는 TV드라마에서는 연기력이 검증되지 않은 신인 혹은 아이돌을 기용하기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웹드라마에서는 이들을 마음놓고 기용할 수 있다. 실제로 엑소, 갓세븐 등을 비롯한 많은 아이돌이 웹드라마에 먼저 출연했다.

지난해 '미생' 신드롬을 일으켰던 제국의 아이들의 임시완은 웹드라마 '미생 프리퀄'에서 연기력을 인정 받아 TV 드라마 '미생'의 주인공으로 발탁됐다. 같은 팀의 김동준도 '후유증'을 통해 중국과 합작한 웹드라마에 진출했다.

아직 데뷔하지 못한 작가나 연출자도 작품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이제는 역으로 지상파 방송사가 웹드라마 제작에 뛰어들고 있다.

KBS는 이미 지난해 네이버와 '간서치열전'을 선보였다. MBC도 올 하반기 포털사이트를 통해 '퐁당퐁당 러브'를 공개한다. SBS는 유승옥 주연의 웹드라마 '소녀연애사'를 계열사 케이블 채널인 SBS 플러스에서 방영하기도 했다. 축구로 따지면 2부 리그 팀이 1부 리그로 승격한 것과 비슷한 모양새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 화제성에만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상대적으로 아이돌을 기용하는 웹드라마가 많다는 점이다.

해외에도 팬덤을 가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흥행을 보장할 수 있지만 연기를 전공한 신인 연기자들의 자리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자칫 팬픽(자신이 좋아하는 스타를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의 영상 버전으로 자리매김할 불안 요소도 있다.

한류 드라마의 장기적 성공을 위해서는 웹드라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시점이다.

다른 운송물 훼손시킨 '반찬' 책임은?

생활 법률

A씨는 타지 생활을 하는 딸이 안쓰러워 얼마 전 밑반찬 몇 가지를 택배에 부쳐 보냈다. 하지만 늦어도 3일이면 도착한다던 택배는 일주일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다. 참다못한 A씨는 택배회사에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따져 물었다가 황당한 말을 들었다. A씨가 택배로 부친 밑반찬 포장이 터지는 바람에 다른 운송물이 훼손됐으니 오히려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보상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배상하라는 적반하장 택배 회사.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 전적으로 택배 회사의 책임이다. 배송물이 밑반찬인줄 몰랐다면 고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알았을 경우 운송에 부적합한 물품 분류에 따라 인수를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또한 택배 회사의 책임이 된다.

택배표준약관 제7조 제2항에 따라 택배 기사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여의치 않을 경우 택배 회사가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할 충격량을 고려해 포장을 하는 방법도 있다. 이 마저도 어려운 운송물이라면 택배 회사는 약관에 따라 수탁을 거절해야 한다. 밑반찬임을 알고도 수탁을 용인했기 때문에 이후 발생한 사고 또한 회사의 책임이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회사는 반찬값에 상당하는 가격을 보상해야 한다. 운송물이 훼손된 경우는 수리 가능 여부에 따라 배상의 영역이 달라진다.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한다.

손해배상액은 소비자가 운송장에 가액을 기재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운송장에 물품의 가액을 200만원이라고 기재한 경우에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운송장에 물품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0만원이다.

/연미란 기자 actor@

순하디 순하다

우리들의 가벼운 | **순하리 처음처럼 복숭아**

14도로 한번 더 **순하게** 더 **깔끔하게**, 순하리 처음처럼
알코올 냄새 NO NO, 최적화된 14도 블렌딩으로 찾아낸 RTS 타입의 칵테일
새로운 음주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RTS (Ready To Serve) : 특별한 제조 없이 바로 칵테일의 맛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술

※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